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3호 【루계 제24981호】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강능수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김일성훈장수훈자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강능수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1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해방 70돐경축 로씨야 까렐리야준비위원회가 16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로씨야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윅토르 에고로브와 부위원장 웨. 에쓰. 뽀스노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강연회, 업적토론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우간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6일 캄팔라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우간다의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고문으로 우간다대통령상급고문 끼룬다 끼베진자가, 위원장으로 우간다대통령부 국장 헨리 마씨코가, 부위원장으로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루가라마가 선출되였다.

끼룬다 끼베진자와 헨리 마씨코는 연설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를 해방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적영웅이시며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정치의 거장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뜻깊은 명절들을 맞으며 경축집회,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 *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끼르기즈스딴준비위원회가 16일 비슈께크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끼르기즈스딴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아. 우쑤쁘바예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조선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령도자께서 김일성주석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김정은령도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며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캄보쟈신문 《꼭쏜때피엡》, 세네갈신문 《러 뽀뿔레르》, 만마TV방송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 인디아신문 《아시아 카바르 데일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천지개벽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캄보쟈, 만마, 네팔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1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평양대경김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김가공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대단히 높은것만큼 공장에서는 김가공품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이자면 련관부문 바다가양식사업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네팔신문 《머저두르》,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천지개벽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실었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4일과 1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락랑위생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께서는 위생용품생산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생산실태와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제품의 질보장에서 편파성을 없애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늘일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일본의 교도통신, 세네갈신문 《러 뽀뿔레르》,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43차 대사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데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대사회의를 마련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대사회의 참가자들은 그이를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이번 회의는 대사들이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관철을 위한 방법론을 토의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사회의 참가자들과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씨야의 신문 《모스쫍스끼 꼼쏘몰레쯔》, 인터네트신문 《브즈글랴드. 루》, 일본의 교도통신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 도이췰란드, 민주꽁고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두다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당의 결심을 실천으로 받드는 백두청춘들의 자랑찬 위훈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가 맡은 1호언제좌우안콩크리트치기 완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청년대축전으로 훌륭히 빛내일데 대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 언제공사에서 련일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언제우안지지대공사를 맡은 함경남도려단, 황해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1시와 21일 새벽 5시에 각각 려단이 맡은 지지대콩크리트타입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이미 지난 6월 18일과 19일 언제좌안지지대와 우안중력부콩크리트치기를 끝낸데 이어 이번에 우안지지대콩크리트치기까지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연 150m 길이의 좌우안언제가 자기 높이에 올라서게 되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이 좌우안중력부, 지지대콩크리트타입과제를 당앞에 결의다진 날자보다 근 40일이나 앞당겨 끝낸 이 기적적인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을 실천으로 받드는 백두청춘들의 용맹과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는 충정의 열매로서 전반적인 1호언제콩크리트타입과제를 8월중에 결속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현장련합지휘부의 일군들은 비상히 높이 세운 단계별공사목표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충정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지난 6월 중순 언제좌안지지대와 우안중력부콩크리트치기과제가 결속된데 맞게 우안지지대공사에 지휘력량과 건설수단들을 집중하였다. 특히 공사추진정형을 매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함경남도려단, 황해남도려단을 비롯한 우안건설력량에 대한 기동적이며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우고 공사를 빠른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함경남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80여일동안에 1만 8 000㎥이상의 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하여 맡은 구간의 언제를 근 30m나 장성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곳 지휘관들은 지난 기간 다지고다져온 려단의 강한 전투력을 우안언제공사에서 다시한번 과시할 만만한 투지에 넘쳐 청년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한편 공사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단계별로 련속타입을 보장할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 끝까지 실행시키는데 큰 힘을 넣었다.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 교대별, 대대별타입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무게가 수십kg이나 되는 마대를 매고 10여m 높이의 경사급한 발판들을 교대전기간 백여차례나 오르고 또 오르며 골재와 세멘트를 지장없이 보장하였다. 혼합물생산을 맡은 청년돌격대원들은 혼합비률을 철저히 지키는데 모를 박고 혼합기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교대당 최고 200㎥이상의 질좋은 혼합물을 생산보장하였다. 혼합물다짐을 맡은 청년돌격대원들도 당을 받드는 백두청춘들의 상징인 만년언제에는 한점의 기포도 있을수 없다고 하며 진동다짐작업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려단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전투기간 단 21시간만에 460㎥의 콩크리트타입을 진행하는 최고기록을 창조하였다. 덩지큰 우안지지대공사를 맡아 높아가는 만년언제와 더불어 당을 받드는 애국충정의 신념과 결사관철의 의지를 백배하며 분발한 결과 려단은 80여일의 전투기간 언제좌우안공사를 맡은 다른 려단들의 타입량을 합친것보다 더 많은 타입실적을 기록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황해남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도 언제우안지지대공사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지난 6월 중순 우안중력부콩크리트치기를 빛나게 결속한 기세로 지지대공사에 달라붙은 려단의 지휘관들은 새로운 전투정황에 맞게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각 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골재운반과 혼합물생산, 혼합물다짐의 전공정에서 백두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7월에 들어와 련일 높은 타입실적을 기록하였다.

려단에서는 언제가 마감높이에 올라선데 맞게 골재와 세멘트운반로선을 더 늘이고 돌격전을 들이대여 마지막단의 콩크리트타입을 하루도 못되여 빛나게 결속하였다.

언제공사에 참가한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의 각 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21일 오후 좌우안언제우에 올라서 멀리 평양하늘가를 우러러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였으며 서로서로 기쁨에 겨워 부둥켜안고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고 또 터치였다.

우리 당의 령도를 받들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세차 불길속에 언제좌우안중력부, 지지대콩크리트치기를 훨씬 앞당겨 빛나게 결속한 전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지금 언제완공을 앞당기는 결정적돌파구인 2중아치형언제콩크리트치기에 련속 진입하였다.

건설건재공업성아래 건설자들과 마음과 지혜를 합쳐가며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떨쳐나선 백두청춘들의 가슴마다에는 다가오는 청년절에 어머니 우리 당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올릴 충정의 맹세가 날이 갈수록 세차게 끓어넘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70만여t의 석탄을 증산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드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석탄공업성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탄광들에서 상반년기간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60여만t의 석탄을 더 생산하여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들, 금속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다. 7월 20일 현재까지는 지난해 7월 같은 기간에 비해 근 8만t의 석탄을 더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에서는 화력발전소석탄보장을 최우선시하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높이 내세운 석탄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참신하게 하였다.

석탄증산의 불길은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서부지구 탄광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상반년기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석탄생산실적이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129%,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122%,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117.6%,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109%로 장성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대동력기지 남지구의 탄광들에서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삼신탄광, 사리원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사리원탄광에서는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157.5%로 넘쳐 수행하였다.

상반년기간 각지 탄광들에서는 동발나무를 극력 아껴쓰거나 대용함으로써 나라의 산림자원을 적극 보호하면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에서는 판성식적재운반설비를 모든 갱막장들에 도입하도록 기업관리를 잘 짜고 들어 생산자대중이 같은 동발나무로 비약적인 생산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부재공장에서는 세멘트생산능력을 종전에 비해 3배로 높임으로써 동발나무를 적게 쓰면서도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상반년기간 각지 탄광련합기업소 기계공장들과 각 탄광 공무기지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기 위한 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득장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자체의 실정에 맞는 석탄운반설비를 제작하여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한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상반년계획수행기간에 심장으로 체득한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증산의 돌파구를 파감히 열면서 석탄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병천

10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공사실천에 도입

과학기술전당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대적요구와 건설대상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공법들을 창안하고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며 최신공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쑥섬지구에 일떠서는 과학기술전당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공사실천과정에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건설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현장지휘부 해당 분과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착공후 석달 남짓한 기간에 방대한 건물골조 및 다리건설에 참가한 시공단위 지휘관, 전투원들은 100여건의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현실에 도입하였다. 결과 이들은 많은 로력과 건설기계, 공사자재를 절약하면서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과학기술전당건설에서 최단기간에 이룩된 이 성과는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떳떳이 들어서려는 비상한 창조정신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2월 몸소 건설장을 찾으시여 과학기술전당을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데 없이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를 다그칠수 있는 혁신적인 공법을 창안도입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군인들을 평가해주시였다.

당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된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공사실천과정에 높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다양하고 실리가 큰 건설기술혁신안들을 적지 않게 탐구도입하였다.

과학기술전당골조공사에 참가한 부대장병들은 시공의 공업화, 현대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각종 건설기계의 성능을 개선하고 발대와 철근, 휘틀조립을 비롯하여 복잡한 시공공정을 헐하게 수행할수 있는 4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현실에 도입하였다. 이들은 비상한 창조력으로 합리적인 겨울철시공과 비녀식지점부보시공방법을 비롯한 공법들을 탐구도입하여 공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고 공사기일도 훨씬 줄이였다. 수직권양기와 혼합물압송기를 비롯한 건설기계들에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 부대장병들은 100일도 못되는 기간에 방대한 건물골조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쑥섬인입다리건설과정에도 가치있는 건설기술혁신안들이 적지 않게 탐구도입되였다.

록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아래 여러 단위 지휘관, 전투원들이 맡은 인입다리시공과정은 그대로 새 공법의 탐구와 도입이 련속적으로 이어지는 전투과정으로 되고있다. 이들이 공사초기에 진행한 침강정작업과 현재 추진중에 있는 다리상판형성공사는 많은 로력과 자재를 들여야 하는 아름찬 건설대상이다. 이들은 규모가 큰 다리공사의 특성에 맞게 칼날보호틀에 의한 침강정시공과 대형철판휘틀에 의한 기둥날개부분시공, 조립일체식다리상판시공방법을 비롯한 20건에 가까운 새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건설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는 비상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철도성아래 철도건설관리국과 수도건설위원회 평양시건설관리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 기술자들도 골조의 지식다리기둥날개부분시공과 4단침목지지보에 의한 일체식콩크리트시공, 단순보에 의한 다리시공방법을 비롯한 각각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여 공사성과를 확대하였다. 철도건설관리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 탐구한 앞선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여 착공후 불과 몇달안에 규모가 큰 새 다리의 운영을 보장하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과학기술전당건설과정에 창안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은 건설자들의 창조적열의를 더욱 높이고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을 갈수록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보검이다

우리 조국의 하늘가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60여년이 지나갔다. 세월은 흘러 그날의 포연은 저 멀리 사라지고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온 로병들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피어린 격전장에서 그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은 오늘도 세차게 맥동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밑뿌리라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그 빛나는 계승으로서 선군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력사를 창조한 위력한 정신적무기이다.

가장 준엄한 시련속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승리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놓은 우리의 전승세대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자,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이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이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살아 높뛰는 한 우리 조국은 영원한 필승불패의 강대국으로 존엄떨치게 될것이다.

1

무릇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말한다. 다시말하여 교전쌍방의 병력수와 무장장비, 경제력에 의하여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것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국가방위와 무력건설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틀어쥐고 여기에 주되는 힘을 돌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러나 전쟁은 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이다.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듯이 아무리 현대화된 최신식무장장비라고 해도 신념이 떨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비겁분자들의 손에 쥐여지면 그것은 한갖 막대기에 불과하며 정신도덕적으로 저렬한 오합지졸의 무리에게서는 그 어떤 승리도 기대할수 없다. 승리는 강한 정신력의 산물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다는 진리를 뚜렷이 확증한 혁명전쟁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량상 대비가 안되는 이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조선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전쟁사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격렬성과 참혹성에 대하여 광범히 떠들어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은 어디까지나 서로 대등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사이의 대결이였고 세계적판도를 싸움터로 한 격전이였다. 이에 비해볼 때 조선전쟁은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과 청소한 나라와의 보통상식을 벗어난 대결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지 5년, 정규무력을 건설한지는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군수공업도 첫걸음을 뗀데 불과했다. 반면에 미국은 100여년의 침략력사를 가진 제국주의괴수였고 원자탄까지 보유한 군사대국이였다. 게다가 미제가 끌어들인 추종국가들 역시 많은 현대전의 경험과 막강한 군사경제적잠재력을 가진 나라들이였다. 어린아이가 땔주먹으로 굶주린 승냥이와 맞서 싸우는것과 같은 이 첨예한 전쟁의 운명에 대하여 세계 수억만 인민들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미제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도, 잔인성과 포악성도 자기의 사상과 위업, 자기의 제도와 행복한 생활을 끝까지 지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당해낼수 없었다. 《미군병사들과 장교들은 무장에서의 우월성이 결코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것을 자각하였다.》, 《조선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누구도 정복할수 없는 사람들이다!》, 미군부와 언론계에서 울려나온 이 비명은 온 세계를 들었다놓았다.

사상론이 미국의 《무기만능론》을 무릎꿇게 만든 바로 여기에 승리의 7.27의 거대한 력사적의의가 있고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이 가지는 비상한 견인력이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떠나 우리 민족의 재생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듯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떠나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이야말로 억만금의 재부에도 비길수 없는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절대적인 충실성, 이것은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의 근본핵이다.

조국은 곧 수령이다. 조국의 부강발전과 륭성번영도 수령의 령도밑에 이룩되고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도 수령의 품속에서 꽃펴나게 된다. 조국수호는 곧 수령옹위이며 그 길에 최대의 애국이 있다.

우리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위훈을 그토록 값높이 평가하는것은 단순히 그들이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전쟁신화를 창조한 영웅들이여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수령을 온넋과 심장을 바쳐 따른 열혈충신들, 수령옹위의 길에서 단 한걸음의 후퇴도 양보도 모른 투철한 수령결사옹위투사들이였기때문이다.

우리 전승세대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삶의 태양이시였고 조선의 미래이시였으며 승리의 기치이시였다.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계셔야 우리 조국이 있고 승리와 번영도 있다는 신념이였다. 이런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웠기에 월미도의 용사들은 단 4문의 해안포를 가지고 적의 5만대군과 맞서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용감히 싸울수 있었다.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면서 군수생산을 보장한 군자리와 락원의 로동계급, 적기의 맹폭격속에서도 밭을 갈고씨를 뿌리며 전시식량증산투쟁을 벌린 후방인민들의 가슴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린것도 수령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한순간을 살아도 수령님을 위해 살고 한목숨 바쳐도 수령님을 위해 바치려는 결사의 의지였다.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야 살길이 열리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한 법동농민의 소박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전승세대들의 수령님에 대한 신뢰심이 얼마나 강렬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 이것은 우리 수령제일주의와 조국에 대한 사랑, 수령관과 조국관이 하나로 결합된 숭고한 애국충정의 정신이다. 바로 여기에 전화의 조국수호정신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후대들이 세기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할 애국의 진리가 있다. 수령옹위의 길에 최대의 애국이 있다는것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준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자기의 것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믿음과 사랑의 정신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그것을 해치려는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낳는다.

돌이켜보면 해방전 나라없는 설음을 안고 온갖 정치적무권리와 천대속에 노예살이를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였다. 그러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되여 가슴펴고 떳떳하게 살아나가는 자주적인민으로 될수 있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이였고 참다운 정치적권리를 안겨준 인민정권이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자기들의 손으로, 지혜와 열정, 피와 땀으로 이루어놓은 새 조선의 모든것이였다. 이 귀중한것을 지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은 무서운 힘을 낳았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물도 없는 목숨을 바쳐 부대의 돌격로를 열어놓은 리수복영웅을 비롯한 1211고지용사들과 적후에서 자폭의 수류탄을 주저없이 터친 이름없는 영웅들의 불멸의 위훈은 바로 자기의 귀중한 모든것을 빼앗으려는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의 발현이였다.

자기의것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 힘의 과신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기간 무려 200여만의 대병력을 들이밀고 1,650억US$의 군사비를 랑진하며 미쳐날뛰였다. 뿐만아니라 《콤맨드작전》, 《초토화작전》, 《불바다전술》 등 각종 명목의 군사작전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조국강토에 수천수만발의 폭탄과 포탄을 들씌웠다. 그러나 미국의 수많은 군사작전은 《오산의 비극》과 같은 실패작으로 막을 내리고말았다.

1950년대의 전승세대가 목숨보다 더 귀중히 간직했던 자기의것, 우리 조국의 모든 재부는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할 혁명의 전취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화의 용사들이 지녔던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신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사회주의조국의 모든것을 목숨바쳐 지킬것이며 전승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갈것이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자기 위업의 승리를 굳게 믿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다.

혁명가들의 락관주의정신은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꿋꿋이 이겨내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다. 앞날에 대한 희망과 필승의 신심으로 충만된 사람에게서 죽음도 초월한 불사신의 용맹이 솟구치고 그 어떤 고난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불굴의 기개가 나오는법이다.

사실상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 행정에는 노도와 같은 진격만이 있은것은 아니였다. 이 로정에는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도 있었고 뼈를 에이는 희생도 많았다. 그러나 총을 쥔 병사들로부터 시작하여 후방인민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언제 한번 신심을 잃거나 비관한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승리를 확신하면서 락천적으로 생활하며 싸웠다. 불타는 고지와 전호가에서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화선악기들을 만들어 음악회를 열었고 후방의 인민들도 전선의 소식이 담긴 편지를 보며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끄떡없는 신념의 강자들로 될수 있은것은 혁명적락관주의의 최고체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그 사상정신적원천을 두고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며 평양시복구건설의 설계도를 무르익히시고 전선에서 싸우는 대학생군인들을 다시 교정으로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대용단은 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다. 아직은 그 누구도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수 없었던 엄혹한 시기에 휘황한 조국건설계획과 그 준비사업이 추진된것은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고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수 없는것이였다. 하기에 세계는 《검은 포연이 도시와 마을, 하늘과 땅을 뒤덮은 그속에서도 승리를 내다보며 아름다운 화폭을 설계하는 인민, 력사는 아직 조선인민보다 더 영웅적이고 랑만적인 인민을 모를것이다.》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그대로 집약되여있는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은 선군조선의 고귀한 정신적재부이며 필승불패의 보검이다.

2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지녔던 정신력을 세기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백전백승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였던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그 추종국가세력들을 타승하고 조국을 수호한 그 정신이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에게 계승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대적이 덤벼들어도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적환경도 현저히 달라지고 세대도 교체되고있다.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우리의 강국건설목표도 비상히 높아졌다. 그러나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한순간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숭고한 정신이 있다. 그것은 항일의 전통을 이어 전화의 나날 우리의 전승세대가 발휘한 조국수호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창조되고 꿋꿋이 이어져온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한시도 잊지 말고 반제반미대결전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도록 이끌고계신다. 미제를 타승한 전승세대의 불굴의 기상을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자욱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전승판으로, 반제반미계급교양의 거점으로,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거연히 솟아 빛나고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각지의 인민군렬사묘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 일떠세우도록 하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고 전쟁로병들을 참다운 애국자, 민족의 장한 영웅들로 내세워주시며 전사회적으로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도록 하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7.27행진곡》, 《위대한 전승의 명절》,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들에 깃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투철한 반제투쟁의지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조국수호의 불길속에서 전승세대들이 흘린 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넋을 이어가는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의무이고 혁명적의리이다. 우리는 미국놈의 항복서를 밟고 지축을 울리며 전승광장을 행진해간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불굴의 기상과 본때를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남김없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은 우리의 사상진지, 계급진지를 철통같이 다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의 대, 계급의 대는 사상정신력의 대이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의 전세대가 발휘한 반제투쟁정신이 계승되지 못할 때 사회주의진지에 파렬구가 생기고 나중에는 모든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상진지, 계급진지의 공고성은 위대한 정신력의 끊임없는 계승으로 담보된다.

전화의 나날 조국방위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은 돈에 팔린 미제고용병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다. 팔다리가 부서졌어도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속으로 뛰여들고 증기압철을 력으로 누르며 멸적의 불을 뿜은 육탄용사들, 고문장과 사형장, 단두대에서도 수령 만세를 웨치며 원쑤들을 전률시킨 유명무명의 당원들과 애국자들의 정신세계는 그 어느 나라의 전쟁사에도 기록된것이 없다.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원쑤들의 악형과 회유에도 끄떡하지 않고 1950년대 종군기자의 그 모습으로 조선로동당원의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킨 리인모동지의 신념과 의지는 후대들이 영원히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 그것은 가장 투철한 수령관, 애국관, 인생관의 정화이며 목숨보다 귀중한 공화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 싸우는 결사의 정신이고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계급적원쑤들을 끝까지 징벌하는 멸적의 의지이다.

전화의 용사들이 사상의 힘으로 미제를 타승하고 전승의 축포를 올린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돈과 무기만을 믿고 전쟁의 불을 질렀던 미제침략자들이 당한 비참한 패배는 후날 미국의 전쟁사가들이 인정한바와 같이 《기절할 정도로 값비싼》것이였다. 이제는 적들도 우리의 진짜위력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있다. 《100대의 전투폭격기가 감당해낼수 없는것을 10명의 〈사도〉가 할수 있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는 침략의 길잡이였지만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 지금 원쑤들은 우리의 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허물어보려고 썩어빠진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다. 적들은 우리의 새 세대들이 전승세대가 지녔던 불굴의 정신을 외면하고 사상적으로 변질되기를 바라고있다. 사상전선만 무너뜨리면 군사, 경제 등 모든 전선이 무너지게 된다는것이 미제와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음흉한 속심이다. 오늘의 반제반미대결전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전쟁이다.

우리의 사상진지, 계급진지는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초석으로 하고있는 불패의 보루이다. 수령의 명령을 위훈으로 빛내인 로병들의 혼장, 침략자의 기발을 불태우며 터쳤던 전승의 축포는 오늘날 원쑤들이 흑백을 전도하며 갖은 발악을 다한다고 하여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전승세대의 그 정신, 그 위훈은 우리의 영원한 넋이며 값높은 영예이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심장마다에 조아박고 원쑤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릴 때 우리의 사회주의진지는 더욱 철통같이 다져질것이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은 군민대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군대와 인민이 굳게 단합되여야 한다. 군민대단결은 제국주의아성을 짓부시는 최강의 힘이며 승리와 번영의 근본담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지구상의 《최강국》과 맞서 싸워 승리할수 있은것은 적측이 거의 순수한 군사력만 동원한 반면에 우리측에서는 전민이 동원되고 군민이 단결하여 싸웠기때문이라고 쓰시였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혈연적뉴대속에서 마련된것이다. 그 정신에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이 어려있고 군민이 한전호속에서 피와 살을 나누며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전우애가 새겨져있으며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미제야수들에 대한 전인민적복수심이 맥박치고있다. 전화의 나날 남강마을과 속사리인민들을 비롯한 후방의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고지에 총포탄과 식량을 보내주고 부상병들을 치료하였으며 인민들이 전호로 뛰여오는 숨결소리만 들어도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전투력은 천백배로 강해지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원군, 원민은 의무이기 전에 량심이고 도리였다. 1950년대에 영웅조선은 물리적인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사수하려는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지적단결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는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전승의 그날을 앞당겨오던 1950년대의 낮과 밤이 그대로 흐르고있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원수님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폭풍쳐 전진하는 군민대단결의 장엄한 화폭이 펼쳐지고있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는 전투장들마다에서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고 이땅 그 어디에서나 군대는 인민을 돕고 인민은 군대를 친혈육의 정으로 위해주는 미풍이 꽃펴나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의 군민대단결은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강위력한 무기이다.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은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승리는 계승되여야 빛난다. 전세대가 이룩한 승리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여도 그것을 후대들이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한갖 추억으로밖에 남지 않는다. 승리의 전통은 정신력의 강자들만이 이어갈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20세기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넣은 승리의 전통이 있다. 항일대전의 승리가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안아온 력사의 기적이라면 7.27전승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뿌리로 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이룩한 쾌승이다.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를 내리막길에 몰아넣어 제국주의체계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그 위기를 심화시킨 조선전쟁을 시초로 하여 미제는 수치스러운 패배의 전통만을 기록하여왔다. 승리의 전통은 선군조선의 영원한 기상이며 패배의 전통은 미제의 숙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승리의 전통은 장구한 기간 미제와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련전련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밑에 빛나게 계승되여왔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천만군민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뼈에 사무치게 간직하고 억세게 투쟁할 때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이런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는 대를 이어》, 《근위부대자랑가》와 같은 시대의 명곡들을 안겨주시고 천만군민이 승리전통교양, 반제반미교양의 거점들에서 전화의 영웅적투쟁정신을 심장깊이 새기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끊임없는 전선강행군길은 승리의 전통을 빛내여나가는데서 인민군대가 본보기가 되도록 하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와 투쟁기풍의 일치를 이루도록 하시는 불멸의 선군장정으로 수놓아지고있다.

승리의 전통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재부중의 재부이다. 오늘 미제는 《거짓말도 백번 하면 진실로 믿게 된다.》는 파시즘광신자들의 교리를 그대로 본따 허위모략선전을 벌리며 저들이 당한 패전을 《승전》으로 뒤바꾸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잊혀진 승리》요 뭐요 하는 패배자의 구차스러운 변명을 미친자들의 넉두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이제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1950년대 전화의 용사들이 지녔던 원쑤격멸의 그 정신으로 미제침략자들을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결심이다.

혁명의 승리는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의 승리이다.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반제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오 수 경

군수렬차의 《특별손님》

주체39(1950)년 12월 어느날이였다.

만포역구내 한복판으로 들어선 소들이 왈랑절랑 방울소리를 울리며 군수렬차의 차량에 올랐다. 하나같이 실한 소들이였다.

《저 소들이 우리보다 먼저 타는구만. 군수렬차의 〈특별손님〉처럼 말이요.》

《그 말이 참 그럴듯 하오. 정말 〈특별손님〉이구만.》

역구내에 빼곡이 들어찬 전투인원들과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사이를 마치 사열이나 하듯 유유히 지나 렬차로 오르는 소들을 바라보며 군인들이 한마디씩 하였다.

정말로 그 소들은 군수렬차의 《특별손님》들이였다.

여기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산진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날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인들이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길에서 구장일대를 통과하다가 적들의 무차별폭격으로 주인을 잃고 여기저기로 헤매는 소들을 끌고왔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군인들은 어려운 행군길에서도 소들을 끌고 수백리가 넘는 먼길을 걸어 고산진까지 왔으며 정성껏 길러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 소는 한집안식솔과도 같다고, 그러기에 농민들은 륜전을 모으고모아 소를 사매고서는 갖은 정성을 다 들여 애지중지 키워왔던것이라고 하시면서 소들을 잘 길렀다가 임자들을 찾아 꼭 돌려주자고 하시였다.

이때부터 구분대군인들은 인민의 귀중한 재산인 소들을 잘 관리하고 기르는데 더욱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런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전전선에서 인민군부대들이 적들을 무찌르며 진격해나가게 되였으며 그들이 속한 부대도 평양쪽으로 나가게 되였다.

그런데 주인을 찾아 돌려주어야 할 소들이 문제였다. 군인들과 무기, 탄약을 전선에 실어나르자고 해도 긴장한데 소들까지 싣겠다고 하니 역의 일군들은 펄쩍 뛰는것이였다.

생각다 못해 그곳 부대의 지휘관은 외람된 일인줄 알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게 되였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중으로 소들을 긴급수송할수 있게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주라는 글을 친히 쓰시고 그것을 역에 나가있는 책임일군에게 가져다주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군수렬차의 《특별손님》으로 된 소들이였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였으랴.

부대의 군인들은 마침내 지방정권기관의 방조를 받아 소들을 주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후 군인들이 보내온 농민들의 소박한 수표와 인장이 찍힌 소인수증을 받아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소를 찾은 농민들은 우리 인민군대가 다르다고 두고두고 옛말처럼 이야기할것이다, 이번에 그 동무들이 정말 큰일을 하였다, 그 동무들에게 나의 감사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것이 어찌 단순한 일화라고만 하겠는가. 군수렬차에 총쥔 병사들보다 농민들에게 가닿을 부림소들을 먼저 태우도록 하신 그 숭고한 뜻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승리를 위해 하셔야 할 작전도 많고 긴급히 제기되는 일들도 많고많으셨지만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군수렬차의 《특별손님》으로 된 소들,

이 이야기는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이 과연 무엇이였는가에 대하여 웅변으로 실증하고있다.

본사기자 백 영 미

미제를 쳐부시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떨친 승리자들의 얼굴마다에 긍지와 자부심 넘친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공동구호에서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라!

산림복구전투의 승패와 나무모생산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습니다.》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는 나무모생산을 더욱 늘여야 할 중대하고도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나무모생산문제를 놓고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산림총국 총국장 김명철: 이 문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에서 산림복구전투성과는 나무모생산을 어떻게 따라세우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양묘장은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과 같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양묘장과 군수공장, 정말 많은것을 생각하게 된다. 지난 기간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부문에서 일하면서 나무모를 키워냈지만 양묘장을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과 같이 본 사람은 일찌기 없었다. 오직 김정일애국주의의 최고체현자이신 우리 원수님께서만이 자연과의 전쟁인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을 군수공장으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나무모를 총포탄으로 보신것이다.

돌이켜볼수록 온 나라의 산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따르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수 없다.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나라의 산림자원이 줄어들었지만 벌거벗은 산을 두고 자기의 피부가 벗겨진것처럼 아파하며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 애써 노력한 일군은 많지 못하였다. 결과 우리 나라의 산림이 영원히 황폐화되는가 아니면 다시 추서는가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이 문제를 시대의 절박한 과제로 보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난해 가을 중앙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투에서 총포탄이 보장되지 않으면 승리할수 없는것처럼 나무모가 없으면 산림조성사업을 성과적으로 할수 없다.

기자: 듣고보니 애국심은 양묘장에서부터 검증된다는것을 확신하게 된다. 현시기 양묘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산림총국 부총국장 김성준: 오늘 우리 당은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양묘장위치를 잘 정하고 지력을 높이는것과 함께 선진적인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일수 있게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선진적인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이자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우선 나무모영양단지성형기를 갖추어놓고 자재와 원료보장을 앞세워 영양단지생산을 늘여야 한다. 영양단지생산을 늘여야 온실과 야외재배장에서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를 많이 생산할수 있기때문이다.

나무모온실이 있어야 한다. 온실은 나무모재배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건설해야 한다. 이때 온도와 습도, 해빛을 조절할수 있게 필요한 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아야 한다.

야외재배장을 기술적요구대로 꾸려야 한다. 야외재배장적지는 자연지리적조건을 보고 실정에 맞게 정해야 한다. 재배장에는 기둥을 세우고 해가림발을 설치하며 관수설비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1정보의 야외재배장에서 10여정보분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다.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중요한것은 종자심기와 가지삽목을 적기에 하고 물보장대책을 세워 회전분무기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것이다. 삽목장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여야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를 집약적으로 많이 생산할수 있기때문이다.

기자: 나무모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푸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국장 강현: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가물로 나무모를 키우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무모생산을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가물극복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무모생산도 낡은 사상과의 투쟁이다. 린산군, 신계군, 평산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여러 군들에서는 양묘장들에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한 전기를 해결하여 관수를 보장하였다. 또한 덕천시, 정평군, 초산군, 송원군, 세포군, 천내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들에서도 자연지리적조건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나무모발관수를 하는 한편 굴포와 우물을 리용하여 부족되는 물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 군일군들은 양묘장의 나무모들이 가물피해를 받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조건타발을 하면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이런 사상관점을 가지고서는 나무모를 제대로 키워낼수 없는것은 물론 언제 가도 벌거숭이산들을 수림화할수 없다.

장마철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예견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여러곳에 도랑을 내여 물이 쭉쭉 빠지게 해야 한다.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깔나무모와 잣나무모뿌리들이 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을수 있다. 또한 나무잎마름병도 생길수 있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병해충에 의한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양묘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산림복구전투의 승패가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뜻대로 전선에 총포탄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보장하도록 하겠다.

본사기자 김창길

적은 자재로 효과를 보는 관수방법

태천군산림경영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양묘장들에서는 좋은 수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나무모발의 지력을 높이며 선진적인 나무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나무모들이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것을 당정책관철의 견지에서 대하면 범상하게 스치던것을 가지고 중요한 문제를 풀수 있다. 태천군산림경영소에서 적은 자재를 가지고 야외재배장관수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한 사실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물이 안개처럼 뿜어지게 하여 하나의 물관으로 3줄의 영양단지나무모판을 동시에 적시게 한 사실이 그 실례이다.

야외재배장건설문제를 토의할 때 초점을 모은것은 나무모판들에 대한 관수문제였다. 영양단지성형기와 해가림발, 콩크리트기둥을 마련하는 문제는 합의를 보았지만 관수문제만은 그 누구도 결심을 내리지 못하기때문이였다.

다음날 하루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선 지배인과 기사장은 원주심을 유심히 보며 무엇인가 생각을 더듬는 한 일군을 보게 되였다. 기사장이 무슨 일인가고 묻자 그는 원주심금구끝에 있는 알을 뽑으면 그것을 노즐로 리용할수 있을것 같다고 하는것이였다.

그 말을 들은 지배인은 생각되는것이 있었다. 아직은 작은 싹에 불과하지만 무심히 대할수 없기때문이였다. 그날 저녁 일군들이 모두 모이자 그는 누구나 선진적인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머리를 쓰면 범상한것에서 큰것을 볼수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말하였다.

일군들모두가 기발한 착상이라고 하면서 당장 시험해보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비닐관에 알을 뽑은 원주심금구를 몇개 꽂고 물을 통과시키였다. 순간 뽀얀 물안개가 날리였는데 노즐을 리용할 때보다 그 반경이 더 넓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즉시 물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원주심금구를 꽂고 해가림발아래에 그것을 설치하였다. 이때 그들이 잘한것은 물방울들이 날리는 반경을 타산하여 모판 3줄당 물관을 한개씩 늘인것이다. 결국 2 000여m의 물관을 절약하면서 야외재배장관수를 할수 있었다.

이렇게 만단의 준비를 갖춘 그들은 성형기를 가동시켜 생산한 영양단지를 모판마다 규모있게 놓고 4월초에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세잎소나무 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종자를 심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2시간씩 관수설비를 가동시키면서 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였다. 특히 나무모들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비료주기와 병해충피해방지를 위한 농약뿌리기를 제때에 하였다.

품을 들인 보람은 컸다. 나무모생산이 지난 시기보다 훨씬 올랐다. 특히 넓은잎나무모는 한해 키워 산에 옮겨심었는데 사름률이 높았다. 또한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세잎소나무모들은 나무모밭에서보다 빨리 자랄뿐아니라 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아 더욱 좋았다.

그뿐이 아니였다. 풀이 적게 나와 김매기에 들던 로력이 절약된것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았다.

이 경험에 기초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4월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종자를 적기에 심고 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는데 힘을 넣었다.

결과 짧은 기간에 1정보의 야외재배장에서 10여정보분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마련되였다.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모든 사물현상을 당정책관철의 견지에서 보고 현실에 받아들일 때 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나무모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

평산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에서

평산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에서 나무모생산을 1.2배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나무모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여 산림복구전투에서 한몫 단단히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산림경영소 지배인 정윤철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전력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가 어려웠기때문이였다. 그는 사색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태양빛을 리용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할 결심을 굳히였다.

며칠후 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배인은 자기의 생각을 터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와하였다. 필요한 전력을 생산보장하자면 150W짜리 태양빛전지판만 해도 16개는 있어야 하였던것이다. 그러는 그들을 보며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자연과의 전쟁인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서 나무모는 총포탄이고 양묘장은 병기창과도 같습니다. 병기창에서 총포탄을 팡팡 생산하자면 무조건 전기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참가자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였다. 종업원들모두가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다시금 깊이 새기고 전력문제해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 태양빛전지판, 축전지확보 등을 스스로 맡아안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종업원들도 온갖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전력생산에 필요한 보조장치들과 부속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짧은 기간에 양묘장의 전력문제가 해결되였다.

자체로 전력을 생산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나무모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지난 시기에는 전기나 디젤유를 리용하여 나무모기르기에 필요한 물을 보장하군 하였다. 그러다나니 비배관리에서 적지 않게 애를 먹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현상이 완전히 극복되게 되였다. 또한 나무모생산의 공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부직포와 영양단지재료만 확보되면 어느때든지 나무모영양단지성형기를 돌릴수 있기때문이였다.

나라의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종전보다 나무모생산을 1.2배로 늘일수 있게 되였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놓고볼 때 첫시작에 품은 들어도 큰 경제적실리를 얻을수 있는것이 바로 자연에네르기의 리용이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높은 곳에 물탕크를 만들어 야외재배장과 나무모온실에 물이 자연흐름식으로 흘러들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자기 단위 사업을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완강하게 실천해온 이곳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열매는 컸다.

본사기자 주창일

푸른 가지삽목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자면 나무모기르기를 앞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평군산림경영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매를 약이나 음료를 만드는데 많이 쓰는 나무라고 하신 단나무모를 푸른 가지삽목의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지난 기간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이 방법의 우월성을 증명하였기때문이다.

몇해전부터 경영소에서는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할데 대한 당의 뜻대로 푸른 가지삽목의 방법으로 단나무모를 생산하고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나무모생산기일을 1년이상 앞당길수 있어 좋았다.

종자를 심어 단나무모를 생산할 때는 보통 3년 키워야 하였다. 이때에는 나무모밭에 질좋은 거름을 많이 내고 갈아엎은 다음 종자를 심어야 했다. 또한 김매기도 자주 하면서 관리해야 하였다. 그러나 푸른 가지삽목방법을 받아들이면서부터 품을 적게 들이며 많은 단나무모를 생산하였다.

가지삽목은 회전분무식원형삽목장에서 하였다.

먼저 7월 중순에 3년 자란 단나무에서 햇가지들을 일정한 크기로 자른 다음 가지의 웃부분 잎만 내놓고 모두 뜯어내였다. 그것을 기술적요구대로 삽목하고 회전분무기를 가동시키였다. 이때부터 삽목장이 마르지 않게 분무기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였는데 15~20일 되니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단나무모를 이런 방법으로 키우다가 11월에 모두 캐서 저장하였다. 이듬해 3월에 저장고에서 꺼내여 나무모밭에 옮겨심고 가꾸었다. 나무모를 이런 방법으로 한해 더 키워 산에 옮겨심었는데 3년후부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였다.

또한 종자채취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나무모를 키워낼수 있어 좋았다. 단나무종자를 채취하자면 많은 품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종자채취에 들던 많은 로력을 절약하게 된다.

나무모생산계획을 높이 세운 우리는 삽목장리용률을 높일수 있게 분무기수리정비에 품을 들이였다. 그리하여 단나무모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우리는 당의 뜻대로 선진적인 나무모기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을 늘이는것으로 고향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나가겠다.

정평군산림경영소 기사장 리영윤

나무모생산에 태양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고있다.
—사리원시산림경영소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적극 지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축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은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내밀어야 할 사업입니다.》

남포시 일군들의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주목되는 점들이 있다. 우선 현지에 나가 려단일군들과 건설작전을 함께 한데 기초하여 지원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한것이다.

지난 3월 시당위원회에서는 구역, 군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그리고 기관, 기업소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진행한 건설지원사업정형을 총화하였다. 이어 수백t의 석탄을 비롯한 지원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다.

그 사업결과를 놓고 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내밀데 대한 당의 뜻을 일관성있게 받들어나가자면 시에서 지원조직사업을 한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현지에 나가 그들과 건설작전을 함께 해야 한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토론하였다. 시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은 제기된 의견을 적극 지지하면서 일군들과 함께 즉시 세포등판으로 떠났다. 현지에 도착한 이들은 건설실태를 료해하였다.

그때 이들이 잘한것은 려단지휘부에 앉아서가 아니라 건설장을 찾아다니며 현지일군들과 구체적인 작전을 한것이였다. 건설장은 평강군과 이천군의 여러 지역에 전개되여있어 오가는 거리가 멀었고 길 또한 험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은 보람은 컸다. 시일군들은 건설장이 있는 지대의 특성과 건설을 맡은 단위들의 실태 등을 속속들이 파악할수 있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현지일군들과 풀판조성 및 비배관리, 대상건설속도와 질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방도를 토론하고 공정별에 따르는 자재와 물자보장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현실적인 작전에 따라 축산기지건설장에 절실히 필요한 자재와 물자보장대책이 신속히 세워졌다. 수백명의 지원로력, 10여대의 각종 륜전기재, 수백kg의 농약과 수백t의 세멘트, 10종에 6천점의 작업공구, 많은 후방물자…

이런 지원사업결과는 매우 좋았다. 려단이 지난해보다 먹이풀씨뿌리기를 빨리 하면서 대상건설에서 앞서나갈수 있게 된 사실이 그에 대해 잘 말해주고있다.

건설을 도와주었다는 형식이나 차림것이 아니라 실지 좋은 결실을 맺을 때까지 떠밀어주자.

일군들이 이런 립장에서 지원사업을 근기있게 내민 사실도 주목된다.

건설과정에 뜻밖의 정황으로 하여 몇동의 건물건설을 제기일에 끝낼수 없게 된 난관이 조성된적이 있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려단의 전반적인 건설완공기일을 보장하기 어렵게 될수 있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길에서 만일의 경우란 있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과 립장에서 건설을 떠밀어주기 위한 긴급대책을 세웠다. 세포등판으로 달려나간 시와 구역, 군 일군들은 실태를 료해하고 불리한 정황을 뚫고나가며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았다. 이들의 전투적인 조직사업에 의해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마음을 놓지 않고 그후 여러차례 현지에 나가 끝장을 볼 때까지 건설을 떠밀어주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내밀었다.

이곳 일군들처럼 현지에 내려가 걸린 고리를 풀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조직하고 강력히 내밀 때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수행하려는 축산기지건설자들의 투쟁성과가 보다 높아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성철

현장에 내려가 작전하고 실천한 결과

남포시 일군들의 사업에서

3차례 우승에로 떠민 원동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오래동안 집을 떠나 어렵고 힘든 건설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혁명전우, 동지로 귀중히 여기고 자애깊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을 따뜻이 보살펴주어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건설장마다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즐겨보는 전투기록장에는 이런 사연도 적혀있다.

언제인가 새벽 1시경에 돌격대가 있는 곳을 찾아온 한 당일군이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초급당비서였다.

전투장에 도착한 그는 돌격대원들의 단잠을 깨울세라 조심히 숙소를 돌아보며 방온도는 몇℃인가,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를 세심히 알아보았다. …

당에 충직한 자식들이 대견할수록 모든것을 바쳐 힘껏 떠밀어주고싶어하는것이 이 나라 부모들의 심정이다. 그런 심정을 안고 근 두달동안 돌격대원들과 같이 생활하며 집짐승우리건설을 완공한 어느 한 국의 일군, 지난 3월 많은 먹이풀씨를 가지고 내려와 보름동안 돌격대원들과 함께 자연풀판에 다 뿌리고 돌아간 부위원장…

명절이면 특히 돌격대원들을 위해 더 마음쓰며 올해 양력설에는 위원회책임일군이, 설명절에는 당일군이 전투장에 나가 그들에게 친혈육의 정을 가슴가득히 안겨주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돌격대에 보내준 수백t의 세멘트와 수십t의 강재, 수백㎥의 목재, 여러t의 먹이풀씨,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소형수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 그리고 많은 후방물자들에도 바로 그런 정이 담겨져있었다.

전투기록장을 펼치고 이런 사연들을 더듬어볼 때마다 돌격대원들은 가슴이 후더워졌다. 이런 당조직과 일군들이 있기에 비록 집을 멀리 떠나있지만 친부모는 항상 우리곁에 있는것이 아니랴.

힘과 용기가 솟구쳐오른 돌격대원들은 이천군사단의 공동순회우승기를 련속 3차례나 쟁취하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세포등판의 남강마을녀성들

강원도의 녀맹원들

온 나라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달려오고있는 세포등판, 여기에 오늘의 남강마을녀성들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자욱도 새겨져있다. 이들이 바로 강원도의 녀맹원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도, 시, 군녀맹조직들이 들끓는 속에 녀맹원들모두가 한마음이 되여 떨쳐나섰다. 그중에서도 세포, 평강, 이천군 녀맹원들의 열의는 남달랐다.

특히 세포군 녀맹원들은 세포등판을 개간하는데서 토지개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을 잘 알고 해마다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에 매달 한사람당 1t씩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축산기지건설장에 보내주기로 하였다. 결코 헐한 일은 아니였다. 하지만 이들은 당의 뜻대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투쟁할 열의밑에 아름찬 목표를 수행해나갔다.

원산시 녀맹원들의 열의도 대단했다. 시녀맹조직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소석회와 탄재도 내고 유기질비료를 많이 쳐서 토양의 영양물질함량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안고 세포등판에 보내줄 토양개량제준비사업에로 녀맹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고무된 녀맹원들은 발이 닳도록 뛰며 올해에만 해도 애국의 땀이 슴배인 60t의 탄재와 30t의 가루거름을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문천시의 녀맹원들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한사람같이 떨쳐나 지난해보다 더 질좋게 만든 수십t의 가루거름을 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안변군을 비롯한 다른 군안의 녀맹원들도 자기들의 지성을 다 바치였다.

지난 1950년대 남강마을녀성들의 숭고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열의밑에 여러해동안 건설전투지원의 길을 힘차게 달려온 도의 녀맹원들을 두고 축산기지건설자들은 세포등판의 남강마을녀성들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자랑하고있다.

본사기자

해주건설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건설의 속도와 질보장에 큰 힘을

해주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최근 살림집건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사업소에서 적은 로력으로 7층짜리 살림집건축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치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얼마전 사업소의 살림집건설장에서는 해주시 중심지구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조직된지 얼마 안되는 단위가 어떻게 되여 도의 한다하는 건설단위 못지 않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공을 공업화, 현대화하여야 건설부문에서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적은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건설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지배인 최만수동무는 대상건설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건설현장들에 대한 참관사업부터 진행하였다.

그가 건설에 앞서 먼저 참관사업을 조직한데는 까닭이 있었다. 적지 않은 종업원들이 건설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건설에서 시공의 공업화, 현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있었다.

당조직에서는 대상건설에 앞서 참관을 조직하자는 지배인의 결심을 지지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사업소에서는 평양시의 여러 건설장과 대기념비적창조물들, 살림집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진행하였다.

대상건설에 앞서 진행한 참관사업은 응당한 결실을 안아왔다.

시공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쓴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었다.

지난 시기 사업소에서는 혼합물의 질보장, 벽체쌓기, 층막다짐 등을 경험이나 눈짐작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참관사업이 있은 후 사업소에서는 건설설비와 기공구들을 자체로 창안제작하고 리용함으로써 있는 로력과 자재로 건설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이기로 하였다. 일군들은 저녁총화때나 기술학습시간을 리용하여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설설비와 기공구를 창안제작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속에서 기발하고 독특한 착상들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좋은 방안들이 나왔다.

일군들은 대중속에서 나온 훌륭한 발기들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였다.

그리하여 혼합물의 질을 보장할수 있는 혼합기와 층막진동다짐기가 마련되였고 물동량을 효과있게 운반할수 있는 권양통이 제작완성되였다.

해주건설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은 건설에서 시공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때 적은 자재와 로력으로 건설을 보다 빨리 그리고 질적으로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시초

농 장 도 시 선 경 가

그리움의 대지에서

한 광 춘

아, 장천벌!
우리 수령님들 류달리도 깊은 정
두고 사신 이 땅에
농장도시가 태여난 소식 들으신다면
이제라도 문득 오실것만 같아라

찬바람 불던 반세기전 그 저녁
처녀농장원의 손에 쥐여진
그 가벼운 빈봉투를
한평생 마음에 무겁게 안고 사신
우리 수령님들

오늘은
희한하게 펼쳐진 농장도시를
한품에 안으시고
고향집뜨락처럼 찾고찾으시던
사연도 많은 마을길 들길
기쁨속에 걸으실듯

저 정갈한 청석길을 지나
궁궐같은 새집에 들리시여
집들이경사도 함께 나누시리
사시절 푸르싱싱한 남새향기에
평생시름이 다 풀린다고 환하게 웃으시리

사무쳐 사무쳐오는 수령님들 생각
오늘의 전변을 어서 아뢰이자고
우리 원수님 숙연히 더듬으시던 저 하늘가
그리운 수령님들을
목메여 부르는 장천땅이여

아침노을 비껴안은 농장도시 창문들도
금수산하늘가를 향해 열리는가
가없는 온실바다도
그리움의 그 기슭으로 물결쳐가는가

안고 가다오
우리 수령님들의 정이 어린
장천벌의 바람결아
이랑마다 푸르른 남새향기
탐스럽게 무르익은 열매의 향기를
금수산기슭으로 안고 가다오

울려가다오
건듯 들린 추녀아래
밤가는줄 모르는 즐거운 웃음소리
사회주의농촌의 문명을 누려가는
복된 주인들의 노래소리
금수산하늘가로 울려가다오

이 나라 들길에 뿌리신 애국의 땀방울
수령님들 바쳐오신 헌신의 그 천만날을
아름다운 농장도시의
오늘에로 이어놓으신 우리 원수님
그 손길에 받들려 솟아난
로동당시대의 황홀한 일만경아

아, 그리움이 파도치는 대지
수령님들의 념원 꽃핀
멋쟁이농장도시에
눈부신 태양의 미소가
해빛으로 넘쳐라

천지개벽 락원도

문 용 철

가로등 눈부신 저녁이면
《원격대학》 가는 젊은이들 노래소리 즐겁구나

장천땅 좌상로인
이 고마움에 눈물도 글썽
땅도 개벽 사람도 개벽이라
아무렴 농사일이 천하지대본이면
우리네 농장도시는 천하제일락원이지

선경의 이 별천지는
한해사이 펼쳐졌건만
눈부신 이 황홀경 그림에 다 담자면
열백자루 붓을 들어
십년세월 그린들 어이 다 그릴소냐

세기를 주름잡는 원수님 자욱따라
바다 가면 천도개벽
들에 가면 천지개벽
날마다 가는 곳마다
전변의 새 절경이 펼쳐지는 이 강산

사과향기 바다향기 넘치는 이 땅에
남새향기 더해주며
사회주의대지우에
문명의 빛발 휘뿌리는 농촌도시여
너는 수수백년 꿈꿔오던 리상의 도시

아, 우리 원수님
천지개벽의 거대한 붓을 들어
이 장천벌에 펼쳐놓으신
농장도시 아름다운 전경화
무릉도원의 락원도여라

온실바다 사랑의 바다

리 창 식

휘늘어진 넝쿨마다 탐스런 금빛참외
한걸음 옮기면 푸르싱싱 오이바다
또 한이랑 넘어서면 주렁주렁 도마도
걸을수록 장관인 온실의 바다

탐스런 열매의 향기에 취해
발걸음 쉬이 못 떼는가

희한한 이 절경 가슴에 안으려니
뭉클 젖어드는 뜨거움이여

푸른 잎새 한껏 펼친
그 어느 이랑에 새겨져있느냐
6월의 불볕이 내려쪼이는 이 온실에서
땀으로 옷깃을 다 적시시며

원수님 찍어가신 그 자욱자욱

그 어느 포전에 어려있느냐
볼수록 흐뭇한 남새풍경에
무더위도 잊으시고
선들바람 불어예는 풍년들길 걸으시듯
환하게 웃으시던 원수님 모습

목메이노라
천만자식들의 식탁우에
사철 신선한 남새를 놓아주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는
어버이의 그 정앞에 목메이노라
오직 인민의 행복 그 하나밖에 모르시는
불같은 그 헌신에 목메이노라

그 로고의 땀방울이
알알이 맺히여
무겁게 드리운 행복의 열매
저 하늘의 해빛으론 무르익힐수 없는
열매바다 만복의 바다가 여기 파도치나니

아, 희한한 온실바다 이 절경
땅우에 펼친것이더냐
기슭이 없는 인민사랑의 바다우에 떠실려
사시장철 설레일 푸른 가을이
온 나라에 물결쳐가는구나

새집들이 밤

김 춘 길

휘영청 밝은 달도
창가에 내려앉아 못 떠나는 밤
입사증에 새겨진
내 이름을 보고 또 보며
잠 못 드는 새집들이 밤

꿈인듯 생시인듯
그릇세간 그쯘한 부엌에선
태양열로 더움헌 물에
두손을 대여보며 닭알도 삶겠다
생긋이 웃는 안해의 모습

깊어지는 밤과 함께
깊어지는 생각
농민 우리보다
나라위해 더 큰일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던가

우주를 정복한 과학자들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인 체육인들…
정녕 이 보금자리가
한뉘 밭을 갈고 곡식을 가꾸는
우리 농민들의 집이란 말인가

사랑의 금방석우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이밤도
전선길 가고가실 원수님 생각에
목메이는 이 마음

땅우엔 계절이 있어
잎은 지고 눈에 묻혀도
사시절 푸르른 온실바다에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무르익혀
고마운 원수님께 기쁨드릴 한 생각

저 하늘의 등근달도
축복의 빛발을 뿌려주는 이밤
창문을 여니
하늘같은 그 은덕에 보답하라고
땅이 나를 부르네
별들이 나를 부르네

엄마의 제일자랑

박 정 철

창전거리 유치원이 옮겨왔나 했어요
그림같은 꽃동산 우리 장천땅
볼수록 희한한 이 유치원에서
다섯살 아들애가 자란답니다

꿈같이 솟아난 아이들의 새 궁전
폭신한 고무깔판이 펼쳐진 놀이마당에
팬히 넘어져도 보고 뒹굴어도 보는
아들애의 모습 웃음도 절로 나요

해종일 개울가에서 물장구치던
우리 집 장난꾸러기
유치원의 물놀이장에서 마음껏 뛰노니
도시아이들 부럽지 않아요

놀이감 가득한 지능놀이방
울긋불긋 꽃침대 따스한 요람은
고운 꿈 나래펴는
별나라 달나라

온실마다엔 탐스런 열매가 주렁주렁
유치원엔 아이들 능금볼이 방실방실
쉰고개를 넘긴 분조장어머니도
떡돌같은 아들을 또 낳고싶대요

이 황홀한 농장도시에
새 집자랑 온실자랑 많고많아도
엄마들의 제일자랑은
아이들의 궁전자랑

아이들이 이 세상 제일 큰 기쁨이고
제일 큰 행복인 우리 엄마들
고마운 원수님께
날마다 행복을 아뢰이며 산답니다
날마다 큰절을 드린답니다

부부대학생

방 명 혁

사시절 온실에서
알찬 열매 무르익히며
사랑의 인연을 맺고
행복한 새 가정을 이룬
장천땅의 신혼부부

포전을 가꿀 때엔
살뜰한 원앙새부부
농장에 새로 솟은 《원격대학》
교정의 책상에 나란히 앉으면
다정한 동창생

온실포전의 이랑을 번져가듯
콤퓨터화면을 펼쳐가며
땅의 속내도 척척 알아내고
남새농사의 대풍을 마중가는
그 모습 볼수록 미더웁구나

낮에는 만복의 열매 가꿔가고
밤에는 탐구의 열매 익혀가는 부부대학생
호미와 낫을 들었던 농민의 손에
오늘은 콤퓨터마우스를 쥐고
과학농사의 대문을 열어가거니

아, 장천도시의
《과학기술전당》이라 부르는
《원격대학》의 부부대학생
레일엔 소문난
남새박사부부가 될거라네

장천벌의 《대극장》

김 진 주

사시절 푸른 남새 가꾸는 그 보람
사계절 풍년열매 따들이는 그 기쁨
열두발상모춤에 실어볼가
이런 훌륭한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
전국노래경연에서도 1등은 문제없지

아무렴 노래경연뿐이겠나
우리네 장천벌에 깃든
뜨거운 어버이사랑
저 넓은 무대에 가극으로 펼쳐서
도시사람 모두 불러 보여주세나

아, 누구나 사랑담아 부르는
장천벌의 《대극장》
행복이 끝이 없어
노래도 끝이 없는
노래속의 농장도시라네

《처녀관리위원장》

리 연 희

아름다운 농장도시 한복판에
녀인은 섰습니다
쏟아지는 해살아래
하냥 행복의 웃음발을 날리며

단발머리 처녀시절에
농장살림 맡아안은것이 대견하시여
우리 수령님
《처녀관리위원장》이라
정을 담아 불러주시던 장천벌의 녀인

현지지도의 먼길을
가실 때에도 들리시고
오실 때에도 들리시며
마음속에 언제나 안고 사신
이 땅 이 들길

50여년 긴긴세월
사시절 들에 살며 들을 가꿔온 녀인
그의 앞가슴엔
수령님 달아주신 영웅메달이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빈봉투농장》이야기

세월속에 새겨진
가슴아픈 그 사연 한시도 못 잊으신
우리 원수님
세상이 부럽도록 펼쳐주신 이 농장도시

한생토록 밟고 산 이 땅이건만
너무도 눈부신 황홀함에
제나이를 잊은듯
은빛물보라 무지개를 그리는 물놀이장에선
명랑한 아이들과 어울려
옷자락 젖는줄도 모른답니다

약동하는 청춘의 대지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것입니까
원수님 은정속에
농장도시의 첫 관리위원장으로 태여나
젊음에 넘쳐있는 녀인의 모습

녀인은 섰습니다
사철푸른 온실바다 싱싱한 잎새들
멋들어진 농장도시 번쩍이는 창문들
저도 몰래 처녀시절 노래도 부르며
녀인이 웃습니다 벌이 웃습니다

장천벌

온 나라 길과 길이
여기 농장도시로 이어졌구나
온 나라 벌과 벌이
이 장천벌로 달려오누나

농장도시 새 절경
희한한 온실바다가 보고싶어
천리 먼 동봉벌에서도 왔구나
벌농사에서 통장훈 불렀다는
미곡에서도 왔구나

전망대에 올라
그림같은 선경을 한가슴에 안아보며
이 별천지를 통채로 떠안고 가고싶다는
신암땅의 관리위원장
연백벌의 기사장

좋구나
그 마음, 그 욕심!
장천땅의것이라면
집집의 창가에 피는 웃음도
구슬을 휘뿌리는 장천원의 물보라도
코스모스꽃잎을 흔드는 바람결조차
자기 고장에 다 옮겨놓고싶다누나

가슴흐뭇이 어려오누나
원수님의 품속에서 태여난
이 농장도시에서
조국땅 방방곡곡
해살처럼 퍼져가는 눈부신 문명이

삼천리

김 남 호

북변의 산골농장에서
서해의 간석지벌까지
이 무릉도원 별천지에
한처마 한뜨락을 이어
온 나라는 그대로 장천벌 삼천리

정녕 그날엔
벌은 벌마다 금파만경이 설레이고
하늘에 닿을듯 풍년로적가리 우뚝하리
천리랴 몇천리랴
온실바다 푸른 물결 가없이 일렁이고
인민의 식탁은 나날이 풍성하리

도시와 농촌이 한모습으로
어데 가나 천만복 기쁨이 꽃피여
생활의 노래는 갈수록 흥겨웁고
로동당만세소리 하늘땅에 넘치리니

아,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해와 달들에
날마다 위성을 쏴올리듯
수백수천 농장도시를 온 나라에 떠올리는 땅
원쑤의 압살망상 쌀폭포로 짓뭉개며
가슴벅찬 레일에로 우리를 부르는 땅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으며
세기와 세기의 문명을 끄당기며
장천벌 삼천리가 온 나라에 펼쳐진다
번영하는 김정은시대 무릉도원 삼천리
행복의 삼천리가 이 땅에 파도친다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조금향, 림설의 어머니들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과의
상봉모임 진행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조금향, 림설의 어머니들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과의 상봉모임이 21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과 깊은 관심속에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 불굴의 녀성혁명가들로 자라난 나라의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조금향, 림설의 어머니들을 축하해주고 녀맹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조금향, 림설의 어머니들은 온 나라 녀성들과 인민들의 축복속에 훌륭한 딸을 키워낸 어머니로 떠받들리우며 너무도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고보니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다면서 자기들의 진정을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사가 되고싶어하는 딸자식들의 소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훌륭한 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로 키워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평범한 처녀들을 영웅조선의 효녀, 선군조선 하늘의 꽃으로 키워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신 그 사랑과 믿음만도 분에 넘치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신의 따뜻한 인사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뿐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아들딸들을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 영웅들로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버이품이라고 그들은 토로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조금향, 림설동무들이야말로 당의 방침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선군시대 녀성들의 거울이며 참다운 본보기라고 하면서 이들과 같이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의 어머니들처럼 자식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바라시는 훌륭한 병사들로 키워 당과 조국, 인민앞에 떳떳이 내세움으로써 선군시대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로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한
영화감상회 진행

조로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한 영화감상회가 21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영화감상회에는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알렉싼드르 미나예브 주조 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로씨야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뿌찐대통령과 상봉》을 감상하였다.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이 떠나갔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였던 배준렬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과 신종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핵협상타결을 우리와 련결시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이란핵문제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것을 기화로 미국이 우리의 핵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있다.

지난 14일 미국무성 대변인은 《북조선의 핵계획문제를 토의하고 핵군축의 구체적이면서도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한다면》 그러한 대화에 림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하였으며 16일 미국무성 차관도 이란핵합의가 추진되여 우리가 고쳐생각해볼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느니 뭐니 하였다.

이란핵합의는 자주적인 핵활동권리를 인정받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으로 이란이 이룩한 성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정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명실공히 핵보유국이며 핵보유국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리해관계가 있는것이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것을 론하는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수단으로서 협상탁우에 올려놓을 흥정물이 아니다.

이란핵합의를 끊임없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적적대행위, 최대의 핵위협이 항시적으로 가해지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우리 핵무력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주조 무관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21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성원들은 전승열병식광장에서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전승기념탑 《승리》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은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관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바흐람 간바리 첼라라씨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미제국주의와의 3년간의 전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조선인민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조선은 반미대결전에서 위대한 력사와 경험을 창조하였다.

미국과 그 동맹자들은 조선에 감히 선불질을 못하고있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 부강번영하는 조선을 이끄시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란다.

무흐타르 마흐무드 카밀 무스타파 에짚트아랍공화국대사관 무관은 참관을 통하여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강철의 담력을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인민이 거둔 승리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장마가 예견된다

7월 19일부터 세력을 확장하고있는 북서태평양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우리 나라로 덥고 습한 공기가 흘러들면서 대부분 지방에서 무더위가 시작되고 20일에는 서해안의 중부이남지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약한 비가 내리는 등 장마이행기의 날씨특징이 뚜렷해지고있다.

앞으로 23일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산발적인 비와 소낙비가 자주 내리다가 24~25일경부터는 전반적지방에서 장마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25~26일에는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도 내릴것이 예견된다.

본사기자

마전유원지 훌륭히 변모, 운영 시작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동해의 명승 마전유원지가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려져 운영을 시작하였다.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102(2013)년 5월 마전해수욕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수욕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군민협동작전으로 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낼수 있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유원지개건에 필요한 자재, 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밑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대중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수천t의 세멘트와 백수십t의 강재, 유기외장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고 방대한 공사가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어려운 건설대상들을 타고앉아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낌으로써 혁명군대의 기질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에 새기고 자체의 힘과 기술, 지방에 흔한 자재로 수십동의 건물에 필요한 건구, 유기외장재 등을 해결하면서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진척시키였다.

건설장에 나래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 정각과 200석, 500석의 야외청량음료, 야외공연무대, 독특한 형식의 야외식사실, 탈의장, 여러 휴양각 등 수십동의 봉사 및 문화오락시설들과 1 000m의 도로공사가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완공되였다.

유원지에서 7, 8월해양체육월간모임이 진행되였다.

지금 이곳에서는 경치좋은 바다가에 펼쳐진 해수욕장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의 기쁨과 랑만의 웃음소리가 한껏 넘쳐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일심단결의 화원을 해치려는 비렬한 날조선전

남조선에서 《박들러》, 《새 나치스당》이라는 말이 류행되고있다. 모략파날조로 혀에 굳은살이 박힌 피뢰집권자와 그 졸개들에게 민심이 들씌운 오명이다.

지금 우리 공화국을 터무니없는 날조자료들로 악랄하게 헐뜯는 피뢰들의 도발소동은 《나에게 한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고 뇌까리며 모략선전에 광분한 파쑈도이췰란드선전상 겝벨스를 릉가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피뢰집권자는 그 누구의 《체제불안정》이니, 《예측할수 없는 도발》이니 하며 반공화국모략선전의 맨 앞장에서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 여기에 피뢰당국의 어중이떠중이들과 극우보수언론들까지 합세하여 각종 모략날조설들을 오물처럼 쏟아내며 민심을 어지럽히고있다.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이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에 또다시 미쳐날뛰고있는것도 피뢰당국의 부추김과 비호를 받았기때문이다.

남조선피뢰들의 극악한 반공화국모략선전은 우리의 존엄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북남대화의 길에 더 높은 차단벽을 쌓기 위한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다.

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외곡하고 없는 사실들을 날조하며 모략선전에 기승을 부린것은 결코 새삼스러운것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극도의 광기를 띠고 감행되는 피뢰패당의 반공화국모략선전은 그 리면을 파헤쳐보지 않을수 없게 한다.

피뢰패당의 반공화국모략선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훼손시켜보려는 흉악한 속심이 깔려있다. 얼마전 피뢰들이 농업생산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평양생물기술연구원에 대해 그 무슨 《탄저균생산기지》라고 뚱딴지같은 나발을 불어댄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농약생산과정이나 탄저균생산과정이 같기때문에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이 《탄저균생산기지》라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농약공장들이 다 탄저균생산공장이라는 수작이 아닌가. 그야말로 유치하고 졸렬해도 그 정도가 너무지나치다. 피뢰들이 벌리는 반공화국모략선전은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이렇게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반공화국모략에 환장한 피뢰패당은 이런 서푼짜리 모략극을 꾸며서라도 《북의 생화학무기위협》설을 날조해내고 그것으로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리는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려고 발악하고있다.

피뢰들의 반공화국모략선전에는 여론을 기만하여 남조선사회 각계에 동족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인상을 확대시킴으로써 저들이 외세와 함께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과 북침전쟁연습책동을 정당화하려는 간교한 흑심도 깔려있다. 그 무슨 《공포》니, 《예측불가능한 도발》이니 하는 완전히 날조된 모략나발을 불어대는 피뢰패당의 망동이 그러한 범죄적목적에 따른것이다.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드는 모략여론류포책동으로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저들의 추악한 몰골을 가리우고 반공화국도발소동을 더한층 강화하려는것이 피뢰보수패당의 기도이다. 하지만 피뢰들이 모략날조선전에 열을 올릴수록 망신만 당하고 내외의 규탄을 받는것은 그들자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반공화국모략선전에 계속 매달리고있는데 피뢰패당의 비극이 있다.

피뢰들의 반공화국모략선전은 날로 강해지는 우리의 일심단결에 질겁한자들의 말기증상이다.

미국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피뢰패당의 발광적인 군사적위협과 고립압살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적대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걸음마다 무자비하게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나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세차게 날리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마련해주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솟아나고있다. 이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불패의 일심단결이 낳은 력사의 기적이다.

우리 공화국에서 그 어느때보다 높이 과시되고있는 일심단결의 위력앞에 당황망조한 피뢰역적무리는 저들의 망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할 기도밑에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으로 케케묵은 반공화국모략선전수법에 또다시 매달리며 서투른 거짓여론을 조작하고 그것을 내돌리기에 급급하고있다. 얼마전 피뢰집권자가 정보원을 몰래 행각하여 모략군들을 부추기며 미친 할미의 잠꼬대같은 요설을 늘어놓은데도 그런 너절한 흉심이 깔려있다. 피뢰보수언론들이 당국이 던져주는 모략자료들을 그대로 되받아외우며 유치하고 좁은 식견으로 그 무슨 《국제사회의 흐름》을 운운하는 소란스러운 개구리합창을 해대고있는것도 그때문이다.

남조선피뢰들이 아무리 반공화국모략날조선전에 열을 올리여도 소용이 없다.

이번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원쑤들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하는 우리 공화국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을 더욱 굳게 다진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다시금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허황한 모략날조로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피뢰패당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였다. 미제와 피뢰들이 발악하여도 공화국정권과 사회주의는 끄떡없다. 우리 인민이 바친 찬성의 한표한표는 그대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병적거부감에 사로잡힌 미국과 피뢰들의 반공화국모략나발을 박산내는 총창이고 폭탄이였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반공화국모략에 기승을 부리던 미국과 그 주구 피뢰역적패당은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보루이며 일심단결의 대화원이다.

피뢰들이 이러한 현실을 애써 부정하며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여론조작에 계속 광분한다면 차례질것은 몸서리치는 죽음뿐이다.

모략날조의 소굴에 무서운 징벌의 불소나기가 들씌워져도 음모군들은 탓하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와 피뢰외교부, 통일부는 물론 보수언론들과 인간쓰레기들을 배후조종하는 정보원깡패들, 모략선전의 전면에서 헤덤비는 기자, 방송원나부랭이들도 례외가 아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헐뜯으며 반공화국모략선전에 미쳐돌아가는 반역무리들은 저들이 멸적의 조준경안에 항상 들어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리 효 진

참패의 교훈을 망각한자들의 대결광증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참패를 당한 1953년 7월 27일의 그날로부터 60여년세월이 흘렀다.

당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앞에 굴복한 미국의 정전협정조인으로 리승만피뢰역적패당 역시 패배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에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이 력사적사변은 피뢰역적들에게도 상전을 섬기며 동족대결에 매달릴 경우 그들의 내리막길을 뒤따를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조미핵대결전 등으로 이어진 조미대결의 나날에 그것이 여지없이 증명되였다.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현 피뢰역적패당이 오늘도 상전의 대조선침략정책실현의 대포밥으로, 하수인으로 나서서 동족대결에 피를 물고 날뛰고있다.

지난 6월 29일 조선서해의 안면도에서 감행된 북침군사연습은 피뢰들의 호전성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날 안면도에서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며 연막탄이 터지고 함포사격과 공중폭격이 가해지는 속에 상륙정과 장갑차, 직승기를 탄 피뢰군상륙부대들이 우리를 노린 선제공격훈련에 광분하였다.

미제침략군의 앞장에 서서 전쟁불집을 터뜨렸던 65년전의 그때를 방불케 하는 피뢰들의 불장난소동은 안면도에서뿐아니라 남조선도처에서 발광적으로 강행되였다.

북침대결광증은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장에서만 발작한것이 아니다.

미국과 피뢰당국의 부추김밑에 인간쓰레기들이 년초에 경기도 파주에서 우리의 체제를 헐뜯는 내용의 삐라를 살포하며 도발소동을 일으켰다.

미제침략군과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언제 전쟁의 불찌가 튕길지 모를 긴박한 사태가 조성되였던 3월에도 이 역적무리, 인간추물들은 반공화국삐라살포책동으로 정세를 전쟁직전으로 몰아갔다.

미국과의 공조로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기 위한 대결소동도 악랄해지고있다.

유엔인권리사회 제28차회의에서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긁어모아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해내는데서 피뢰당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놀아댄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인권법》조작책동이 악랄해지는 속에 6월 23일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울에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이상 만회할수도 수습할수도 없는 파국에로 몰아갔다.

인간쓰레기, 인간추물들이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꾸며낸 자료들로 엮어놓은 《북인권백서 2015》라는것을 발간한것은 어떻게 하나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이루어보려는 피뢰역적패당의 흉악한 속심의 발로이다.

이 흉심으로부터 《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더 강한 압박에 나서겠다고 줴치며 외세의 반공화국제재소동에 가담해오던데로부터 한발 더 나가 독자적인 금융제재조치를 들고나왔다.

얼마나 천미사대, 동족대결의 현혼증에 걸렸던지 미국의 《쏘니 픽쳐스》에 대한 해킹공격사건을 우리와 련계시키는가 하면 조선전쟁시기 저지른 미제침략군의 세균전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두고 《황당한 내용을 선전》한다고 헐뜯는 등 앞뒤분간을 못하는 증세를 보이며 헤덤벼쳤다.

미제침략군의 탄저균반입사건에 대해서까지 《북의 탄저균공격대응을 위한 정당방위》니 뭐니 하다가 면박을 당하였다.

미국의 사타구니에 붙어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피뢰역적패당이 갈 길은 불보듯 명백하다. 피뢰패당은 6.25의 뒤에 언제나 7.27이 있다는 력사의 흐름을 명심하고 멸망을 눈앞에 둔 미국상전의 대조선침략정책에 편승하는것이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대화가 아니라 동족대결을 노린 삐라살포행위

최근 남조선의 피뢰집권세력이 어느때보다도 《대화》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얼마전에도 《회담제안》이니, 《초청》이니 하면서 마치도 저들이 북남관계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냄새를 피워댔다. 하다면 피뢰들이 《대화》타령을 늘어놓고있는것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것인가 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그것은 저들의 대결적정체를 가리우고 반공화국도발소동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얕은수에 불과한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삐라살포소동이 또다시 벌어진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조국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들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지역에 도적고양이처럼 기여나와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비방중상하는 내용의 삐라 수십만장과 천여개의 기억기들을 풍선에 매달아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극악무도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 인간쓰레기들이 빈번히 벌려놓고있는 삐라살포놀음은 우리 공화국의 일심단결을 해치고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려는 피뢰패당의 악랄한 심리모략전의 한 고리로서 북남관계파국의 주되는 요인이다. 피뢰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해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날조자료들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엄중히 중상모독하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소동을 응당 저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피뢰당국자들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그 무슨 《표현의 자유》니, 《균형있는 대처》니 하는 판에 박힌 소리만 앵무새처럼 외워대면서 사실상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비호조장하였다.

반공화국삐라살포가 북남사이의 체제대결을 위한 피뢰패당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라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하지만 교활한 남조선피뢰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공화국삐라살포에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움으로써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피뢰패당은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이 반공화국삐라살포를 계속할것을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균형있는 대처》니 뭐니 하며 요술을 피우고있을뿐이다. 이로써 피뢰집권세력은 저들이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는 《대화》라는것이 한갖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돌이켜보면 피뢰당국은 북남관계의 중요한 계기때마다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을 감행함으로써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립,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장해왔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비렬한 삐라살포놀음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여러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피뢰들은 우리의 경고와 충고를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체제특성》이니, 《민간단체의 자률적행동》이니 하는 통할수 없는 궤변만 늘어놓으면서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행위를 계속 조장시켰다. 뿐만아니라 삐라살포를 막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립장은 《변함없다.》고까지 뇌까리면서 인간쓰레기들을 더욱 두둔하고 우리에게 도전해나섰다.

변변한 직업이나 생존수단도 없이 피뢰당국이 던져주는 몇푼의 돈으로 구차스러운 목숨을 부지해가고있는 벌레같은것들이 피뢰당국의 방조와 지원이 없이 군사분계선일대에 뻐젓이 나타나 삐라살포놀음을 강행한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번에 피뢰패당이 또다시 그 무슨 《표현의 자유》를 론하며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묵인하고 《균형있는 대처》니 뭐니 하며 북남사이의 무장충돌이 발생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듯 한 냄새를 풍긴것은 역겹기 그지없다. 그 따위 서푼짜리 기만극은 이제는 너무도 낡아 그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다.

현실은 반공화국삐라살포로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며 우리의 일심단결을 흔들어 골수에 배긴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려는 피뢰패당의 흉계는 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런 흉악한자들이기에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해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의 애국적인청년학생들에게는 체포령장을 발급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전쟁을 몰아오려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망동에 대해서는 못 본척, 모르는척 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뢰당국이 《대화》를 떠들며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대결망동이다.

결국 피뢰당국자들이 입만 벌리면 내뱉는 《대화》타령은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야망을 실현하려는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넉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피뢰패당의 반공화국삐라살포소동은 그것이 북침전쟁의 불찌를 날리고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하다.

북남사이에 지금과 같이 첨예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있는 속에서 대화가 진행될수 없고 평화가 보장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우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며 감행되는 삐라살포놀음을 묵인하고 조장시키는것은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행위이다.

피뢰집권세력은 저들이 감행하고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의 후과가 얼마나 돌이킬수 없는것인가 하는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치떨리는 생화학전죄악의 장본인

올해는 생물 및 유독성무기들의 개발과 생산, 취득, 전파, 보유, 저축,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발효된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한 외신이 의미심장한 글을 실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이 생물무기금지노력을 강화하려는 국제공동체의 활동에 건설적으로 참가할 대신 다른 국가들에 대한 도발적인 중상을 일삼고있다는것, 그 목적은 자기의 좋지 못한 경력과 변함없는 야망을 숨기려는데 있다는것이다. 옳은 지적이다.

미국이야말로 생물무기를 비롯하여 인류를 멸살시킬수 있는 위험한 대량살륙무기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주범이다. 그러면서도 미제는 다른 나라들에 《대량살륙무기확산범인》의 감투를 곧잘 씌우고있다. 그야말로 강도가 몽둥이를 들고 길우에 나서는 격이다.

최근 미국이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우리의 과학연구 및 생산기지인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그 무슨 《군사적사용이 가능한 맹독성탄저균의 최신생산시설》, 《민간업체로 위장한 생물무기공장》으로 둔갑시키고있는것도 그것을 보여준다. 미국상전의 앵무새인 피뢰들도 덩달아 우리를 헐뜯는 모략과 허위여론류포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중상모해이고 날조이다.

조선반도에서 생화학전을 꾀하고 우리에게 생화학무기공격위협을 가하고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이다.

오래전부터 미제는 생화학무기를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기본수단의 하나로 써먹어왔다. 오늘도 미국은 생화학무기를 손쉬운 방법으로 교전상대측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전쟁목적을 이룰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삼으면서 세계적으로 그것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사용할 태세밑에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세균 및 독성무기개발을 장기적으로 추진시켜온 세계최대의 생화학무기개발 및 생산국이다.

세계는 미국의 야만들이 우리 인민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세균전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한 력사적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강력한 타격앞에 심대한 군사적패배를 당한 미제는 악에 받친 나머지 페스트, 콜레라, 티브스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균들을 묻힌 파리, 거미, 빈대 등 다량의 곤충들을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뿌리였다. 미제는 전쟁 전기간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세균무기와 유독성화학무기들을 공공연히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수많이 학살하였다. 이 치떨리는 세균전만행은 미합동참모본부의 지시와 미극동군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되였다. 이것은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인간멸살행위로서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였다. 조선에서 미국의 살인장군들은 《페스트장군》, 《콜레라장군》이라는 추악한 별명까지 얻게 되였다.

세균무기, 유독성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할데 대한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대상으로 세균전만행을 감행함으로써 커다란 인적 및 물적피해를 입힌 미제는 력사의 심판대에 나서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저들이 저지른 그 천인공노할 야만적범죄행위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남조선을 거대한 생화학무기고로 전변시키고 새로운 북침전쟁도발을 꾀하며 생화학전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이로 하여 우리는 항시적으로 미국의 생화학전쟁위협을 받아왔다.

전후 미제는 제2의 조선전쟁에서도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특히 최근시기 미국은 그 무슨 《생화학전대비》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남조선에서 새로운 화학전부대들을 편성하는가 하면 더 많은 생화학무기들을 끌어들여 저축하고있다. 몇해전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미행정부가 새로운 대규모생물무기연구소를 건설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뉴욕 타임스》도 미국방성이 세균을 다루는 공장을 건설하는 등 새로운 생물무기에 관한 연구를 비밀리에 시작하였으며 그것을 더욱 확대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불을 지를경우 지난 조선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생화학무기를 또다시 사용하려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상전의 생화학전쟁도발책동에 적극 동조해나서는 피뢰패당의 쓸개빠진 망동이다.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피뢰호전광들은 오래전부터 생화학무기개발을 정책화한데 기초하여 그 연구,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왔으며 미국으로부터 신형생화학무기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피뢰들은 이미 생화학전쟁을 통일적으로 지휘할수 있는 《화생방방호사령부》라는것까지 창설하였다. 해마다 감행되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에는 의례히 생화학전훈련이 동반되고있다. 피뢰들은 또한 미국과 함께 그 누구의 《생물무기공격》에 대비한 감시체계를 수립한다고 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미국방성과 피뢰국방부의 관리들은 이미 그와 관련한 《5개년사업협약》이라는것에 맞도장을 눌렀다. 이에 따라 미국과 피뢰들은 악명높은 생물무기개발기지인 미륵군감염연구소의 자료를 공유하는 등 생물무기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공동분석을 진행하고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저들의 행위가 그 누구의 《생물무기공격》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며 《공격목적의 개발, 보유를 금지한 조약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변명해나서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이 우리의 있지도 않는 《생화학무기개발》과 《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는것은 보는바와 같이 그것을 구실로 저들의 생화학전쟁책동을 합법화하려는데 그 음흉한 속심이 있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생화학전쟁준비책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의 침략적야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뚜렷한 증거이다.

남잘이가 제잘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과 남조선피뢰호전광들은 광란적인 생화학전쟁도발책동으로 종국적파멸의 시각을 앞당기고있다.

만일 미제와 피뢰들이 이 땅에 끝끝내 생화학전쟁의 독구름을 몰아온다면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이란 무자비한 징벌과 비참한 운명뿐이다.

본사기자 허 영 민

미제침략군의 탄저균반입을 단죄하고 생화학무기실험실폐쇄를 요구하는 남조선주민

실 화

나는 왜 의용군에 입대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 남조선인민들을 식민지예속에서 해방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질 조국통일의 그날을 그릴 때마다 나에게는 남녘땅을 해방할 불타는 열망을 안고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에 입대하여 싸우던 청춘시절에 대한 추억이 삼삼히 떠오른다.

전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미친듯이 북벌을 떠들던 피뢰군놈들은 다 쫓겨가고 인민군부대들이 강릉에 다달았다. 나는 인민군대를 도와 포탄상자도 져나르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주먹밥도 날라다주었다.

어느날 우리 가정을 찾은 인민군대는 집토방우에 식량을 놓고갔다. 그때 우리 집에는 보리쌀이 조금 있었다. 지금껏 집집마다 달려들어 먹을만 한것은 다 털어내던 피뢰군만 보아오던 나로서는 이 사실이 놀라왔다. 나날이 찌그러져가는 우리 집의 가난한 살림살이형편은 인민군대로 하여금 그처럼 귀한 군량미까지 내놓게 한것이였다. 나의 가슴속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이 날로 령락되고 도탄에 빠져들었지만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북침전쟁연습에만 미쳐날뛰며 끝끝내 전쟁을 도발한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에 대한 증오가 끓어올랐다.

나라는 해방되였지만 공화국남반부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막막해졌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문맹퇴치운동이 벌어져 누구나 글을 읽고 쓸줄 알며 도처에 성인학교가 일떠서 문맹자가 점차 없어져간다는 이야기가 나의 귀전에도 흘러들었다. 어머니는 둘째아들인 나만이라도 공부시키겠다고 삯바느질과 누거리어물장사로 월사금을 근근히 마련해갔다. 어머니는 식구많은 집안의 가장이 되여 아들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었다.

나는 죽더라도 인민군대를 따라가는 길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으며 부모형제들, 전체 조선인민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을 징벌하고 공화국남반부를 해방하기 위하여 의용군에 입대할것을 결심하였다.

나는 소원대로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먼저 우리는 후방의 어느 한곳에서 군사훈련과 정규교육을 받았다. 인민군대에서는 의용군출신의 병사인 나를 끔찍이 아껴주고 어엿한 군인으로 키워주었다. 마음껏 배우고싶었던 나의 희망은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비로소 성취되였다.

그후 나는 려단중기사수로 싸서서 좌지를 옮기려고 하였다. 그런데 옷자락이 강기슭에 딱 얼어붙어 일어날수가 없었다. 귀도 얼고 발도 얼고 온몸이 다 얼어들었다. 여기에 원인모를 고열까지 겹쳐 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후에 알게 되였지만 미제침략자들이 불러한 전선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1950년 겨울부터 범죄적인 세균무기를 사용했던것이다. 세균무기는 남조선의 무고한 주민들 지어는 수많은 피뢰군사병들에게도 무차별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미제야말로 식인종무리이며 피뢰군이야말로 미제의 가련한 총알받이였다.

그후 후방병원으로 후송된 나는 깨끗이 병을 완치하고 새로운 전구에서 싸우게 되였으며 공화국영웅으로까지 되였다.

1951년 1월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솜옷을 입고 적후에 나가싸웠다.

경기도 련천지역에서 퇴각하는 적들을 소멸하던 때의 일이다. 그리 크지 않은 강의 맞은편기슭에 몰켜있던 적들은 악착스럽게 저항하였다. 나는 강기슭에 중기를 바투 대였다. 날씨는 령하 25~령하 30℃였다. 중기판총으로 한동안 놈들을 답새긴 나는 일어랑앞에서는 그 어떤 신형무기도 맥을 추지 못하였다.

지금도 더이상 전투를 할수 없는 몸이 되여 후송의 길에 올랐던 그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타고가던 차는 그만 놈들의 기총탄에 기관이 다 거덜이 났다. 의식이 가물거리는 속에 문득 고향어머니의 정다운 얼굴이 떠오르면서 어머니의 품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은 강릉땅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생각에 나는 락심하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내옆에서 그 누구인지 모를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들이 간간이 들려왔다. 눈도 뜨지 못하고있는 나를 내려다보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락수리의 처녀들이였다.

그들은 들것에 나를 눕히더니 적계기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다시금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허황한 모략날조로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피뢰패당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였다. 미제와 피뢰들이 발악하여도 공화국정권과 사회주의는 끄떡없다. 우리 인민이 바친 찬성의 한표한표는 그대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병적거부감에 사로잡힌 미국과 피뢰들의 반공화국모략나발을 박산내는 총창이고 폭탄이였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반공화국모략에 기승을 부리던 미국과 그 주구 피뢰역적패당은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사회주의보루이며 일심단결의 대화원이다.

피뢰들이 이러한 현실을 애써 부정하며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여론조작에 계속 광분한다면 차례질것은 몸서리치는 죽음뿐이다.

모략날조의 소굴에 무서운 징벌의 불소나기가 들씌워져도 음모군들은 탓하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와 피뢰외교부, 통일부는 물론 보수언론들과 인간쓰레기들을 배후조종하는 정보원깡패들, 모략선전의 전면에서 헤덤비는 기자, 방송원나부랭이들도 례외가 아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헐뜯으며 반공화국모략선전에 미쳐돌아가는 반역무리들은 저들이 멸적의 조준경안에 항상 들어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리 효 진

혁명사적지관리에 한생을 바쳐

남포혁명사적지관리소 부원 배선복동무

남포혁명사적지관리소 부원 배선복동무는 지난 37년간 여러 혁명사적지들의 주변원림록화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오고있다.

사리원농업대학(당시)을 졸업한 처녀시절부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사적지주변관리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 바쳐오고있는 배선복동무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소망은 무엇이던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은 수림화하여야 합니다.》

배선복동무의 고향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이다.

거기서 나서자란 그에게는 남다른 결심이 있었다. 소년단시절과 대학시절에는 물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혁명사적부문에서 뗄 때에도, 가정을 이루고 인생의 로년기에 이른 오늘까지도 그의 가슴속에는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고 관리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마음뿐이였다.

하기에 그는 어느 한 혁명사적지구역의 원림조성사업을 맡았을 때 주저없이 원림설계에 달라붙었다. 생소한 분야였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혁명사적지를 더욱 풍치수려하게 꾸리려는 마음안고 그는 원림록화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정성껏 심은 나무들이 바야흐로 대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무성한 잎새를 펼치고있던 그때 배선복동무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남편을 따라 남포로 이사온 배선복동무는 다시 원림록화사업에 몸을 잠그고 시의 령도업적단위들의 원림록화사업에 지성을 다하였다.

언제인가 농업대학출신인 그에게 한 일군이 녀성관리위원장으로 한몫할 생각이 없는가고 물었을 때에도 배선복동무는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전 남포시의 혁명사적지들마다에 푸른 숲이 우거지고 꽃들이 만발하게 피여난 모습을 보는 때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보다 정중히 꾸리고 길이 빛내이려는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굳세여졌다.

뜻하지 않은 일로 심한 타박상을 입고 다리를 상했을 때에도 그는 한발로 재봉기를 돌리며 혁명사적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도구들과 장갑을 만드느라 무진 애를 썼다.

그러한 배선복동무였기에 언제인가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수십그루의 진귀한 꽃나무를 안고 만경대를 찾은적이 있었다.

혁명의 성지에 한그루한그루 꽃나무를 정성다해 심고 돌아오던 그날 딸은 어머니품속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나도 어머니처럼 살겠어요.》

배선복동무는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딸자식이 더없이 고마와서였다.

한생을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바쳐오고있는 결곡한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자식들이기에 배선복동무의 아들, 딸도 어린시절부터 교단에 선 오늘에도 남포시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 주변관리사업에 자기들의 순결한 마음을 다 바쳐오고있다.

한생을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는 사업에 바쳐오고있는 배선복동무는 오늘도 그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가고있다.

특파기자 주 창 선

절대로 부정해버릴수 없는 범죄의 력사

얼마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39차회의에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사람들을 아연케 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들로 말하면 그 대부분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곳들이다. 때문에 일본이 그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부터 아시아나라들은 강제 및 노예로동은 과거 일본이 해외침략과 식민지통치기간에 저지른 엄중한 죄행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여나섰으며 유네스코가 제기된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것을 요구하여나섰다.

그런데 이 모든것이 무시되고 아시아나라들의 피맺힌 원한이 서린 일본의 과거죄악의 증거물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피이하기 그지없는 일이 벌어졌던것이다. 물론 이번 일이 일본의 교활한 각본과 일부 세력들이 그에 맹종맹동한 결과에 의하여 초래된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일본의 근대산업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등록이 정상적인 등록과정과 다르게 진행되고 등록결정문이라는것이 일본의 기분에 맞추어 그들의 립장에서 작성된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등록결정문에는 조선사람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강제로동을 당한 내용이 서술된것이 없으며 다만 결정문의 한 조항에 주석을 다는 형식으로 에둘러 반영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과거에 일본에 의하여 아물수 없는 상처를 입은 아시아나라들의 감정을 외면하고 완전히 일본의 편역을 들어주며 꼭두각시노릇을 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심히 잘못된것이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하기에 우리는 그에 대해 구태여 더 론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근대산업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등록시 일본대표가 조선인강제로동과 관련하여 한 발언을 놓고 일본정부가 얼토당토않은 해석을 가하면서 강제로동사실을 부정해버리고있는 조건에서 그 속심을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원래부터 일본은 언제 한번 자기의 과거죄행을 인정해본적이 없다. 이번에도 처음부터 강제로동사실을 감추어보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그 무슨 시기성을 론하면서 조선인강제로동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는 넉두리를 늘어놓았다. 이것이 아시아나라들은 물론 일본국내의 강한 비난을 자아냈다.

일제의 조선강점시기의 강제동원피해를 조사해온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신청한 23개 시설가운데서 이미 알려진 7곳외에 이와 데현 가마이시제철소와 탄광 등에서도 조선인들이 강제로동을 한 사실을 밝히고 여기에서 목숨을 잃은 조선인수와 명단까지 공개하면서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여나섰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일본반동들은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며 뒤공작에 매달렸다. 그리고는 유네스코주재 일본대표를 내세워 일부 산업시설들에서 조선사람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힘든 조건에서 강제로동을 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정책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리해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애매한 발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당면한 목적달성을 위한 한갖 오그랑수에 불과한것이였다.

일본은 결코 과거죄행을 인정한것이 아니였다. 그후의 일본당국자들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저들의 산업시설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자마자 일본의 고위인물들이 직접 나서서 언제 그랬던가싶게 아닌보살하며 일본대표의 발언에 당치않은 해석을 붙이면서 부정해버리고있다. 국제조약에 강제로동은 금지되여있지만 전시중의 징용은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국제법상 강제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저들의 번역문에도 《일하게 되였다.》고 되여있다는 잡소리를 줴쳐대고있다. 한마디로 유네스코에서 한 일본대표의 발언이 강제로동을 인정한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역시 낯가죽이 곰발통같은 일본반동들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다. 일본이 과거에 수많은 아시아인들을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다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일본은 지난 세기 전반기에 우리 나라에서만도 침략전쟁의 계단식확대로 고갈된 로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 《학도근로령》 등 악법을 련이어 조작실시하여 강제징발된 숱한 조선사람들을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당시 조선인강제징용에 나섰던 일본인 가마다도 《가장 가혹한것은 로무의 징용이였다. 전쟁이 점차 가렬해짐에 따라… 로무징용자의 할당이 상당히 엄하게 되였다. 납득시켜서 응모하게 하려고 해서는 도저히 예정수자를 채우지 못하게 되였다. 그래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로무계원이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에 남정들이 자고있는 집을 갑자기 습격하거나 혹은 논밭에서 한창 일하고있는 때에 짐차를 들이대고 거리낌없이 잡아갔다. 그다음에는 대오를 편성해서 혹가이도나 규슈의 탄광들에 보냈다.》라고 증언하였다.

일본이 과거에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이것이 범죄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인할수 없는 력사의 진실이다. 아시아나라들이 일본의 근대산업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등록을 놓고 비난하고있는것은 바로 거기에서 중세기적이며 야만적인 강제로동범죄가 감행되였기때문이다.

력사는 전쟁을 도발하고 강점지역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가 고역과 죽음을 강요한 침략자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처럼 이렇게 철면피하게 행동하는 나라는 없다. 과거에 강제로동범죄를 저지른 나라들은 다 그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 배상하여오고있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일본은 력대적으로 과거범죄가 문제시되면 기를 쓰고 부인하고 정당화해왔다.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다가 증거가 나오거나 반발이 일어나면 사죄하는척 하다가는 다시 증거부족이니, 맞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고 말바꾸기를 하며 국제사회를 우롱하여왔다. 일본반동들의 도덕적저렬성은 완전히 협악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이 이렇게 행동하는 목적은 딴데 있지 않다. 과거 침략과 반인륜범죄의 력사를 어떻게 하나 부정해버리자는것이다. 이것은 곧 지난날의 력사를 되풀이하겠다는것이나 같다.

일본은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있다.

일본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고있다. 력사는 그 누구의 주관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으며 공정하다. 아무리 과거범죄를 흑막속에 묻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일본은 자기가 저지른 죄행으로 하여 언제든지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라서게 될것이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늦게나마 자기의 잘못을 하루빨리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하여야 한다. 여기에 일본이 국제사회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는 출로가 있다.

리 학 남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전쟁발발의 진상》

여러 나라 신문, 방송 보도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캄보쟈신문 《뻬랴 쩨이》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조선의 핵보유때문에 조선반도정세가 긴장해지고 그로 하여 미국이 부득불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허나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원과 부당성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력사와 현실을 외곡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시하여왔다.

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정전협정의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정전상태의 장기화를 추구하면서 해마다 조선반도에서 대규모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고있는 사실, 조선에 가혹한 경제제재와 봉쇄를 가하고있는 사실을 렬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력사적사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조선의 핵보유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조선의 핵보유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자면 그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회되여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이 나라의 에프엠 90.5방송도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는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옹근 한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조선전쟁이 있은지 60여년세월이 흘렀다, 이 장구한 나날 미국은 전쟁발발의 진상을 외곡해왔다고 지적하고 1945년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준비, 1950년 6월 25일 전쟁도발 등을 까밝히는 사실자료들을 실었다.

쿠웨이트신문 《쿠웨이트 타임스》, 베네수엘라신문 《베아》도 조선전쟁의 도발자 미제의 죄행을 폭로단죄하는 글들을 게재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손을 떼라

에쥪트인사 담화 발표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에쥪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에쥪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야흐야 자카리야 헤이룰라가 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족이 미제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이 된다.

조선민족은 수수천년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한민족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시기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다.

조선이 통일되자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철수하여야 하며 남조선당국이 외세에 추종할것이 아니라 조선민족끼리의 립장에 서야 한다.

조선의 통일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여있다.

미국은 하루빨리 조선반도에서 손을 떼고 제 집으로 돌아가라.

한편 브라질근로자중앙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여 1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앞으로 련대성전문을 보내여왔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위상을 허물어보려고 미쳐날뛰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망동을 규탄하여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이 최근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이 《맹독성탄저균의 최신생산시설》이며 《민간업체로 위장한 생물무기공장》이라고 줴쳐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것은 전혀 무근거하고 악의에 찬 궤변이다.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은 철두철미 과학연구 및 생산기지이다.

조선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과학연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 누구도 이를 가로막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근거하고 모략적인 궤변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남조선에 탄저균을 반입하고 조선민족에게 핵 및 세균전의 참화를 들씌우려고 미쳐날뛰는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걸고드는것은 철면피의 극치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놀래울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평양생물기술연구원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궤변을 준렬히 규탄한다.

국제체육소식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회 회의 진행

새로 선거된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회가 11일 바레인의 마나마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국제축구련맹 위원장선거문제와 아시아나라들의 공동보조와 관련한 문제, 감독 및 선수육성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아시아축구련맹 집행위원회는 12명의 성원들로 구성되여있다.

2016년 올림픽경기대회 홰불봉과 봉화이어달리기로정 공개

리오 데 자네이로올림픽조직위원회가 3일 2016년 올림픽경기대회 홰불봉과 봉화이어달리기로정을 공개하였다.

이를 위한 의식이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서 진행되였다.

재생알루미니움과 수지로 만든 홰불봉에는 서로 다른 색갈의 5개 곡선이 그려져있는데 이 곡선들은 땅과 바다, 산, 하늘, 태양을 의미한다고 한다.

봉화이어달리기로정에는 브라질의 300여개 도시가 포함되게 된다.

홰불봉은 다음해 5월 브라질리아에서 출발하여 1만 2 000명의 봉화수들의 손을 거쳐 개막식 당일인 8월 5일 마라까나경기장에 도착하게 된다.

2015년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 상징물 공개

칠레의 싼띠아고에서 최근 국제축구련맹 2015년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 상징물을 공개하는 의식이 있었다.

상징물의 이름은 《브로치꼬》이며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브로치꼬》는 칠레의 청소년들과 대회에 참가하는 나어린 선수들을 상징하였다고 한다.

의식에서는 대회주제가도 소개되였다. 대회는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칠레에서 진행된다.

규탄받는 이스라엘

계속되는 탄압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15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라말라흐시에서 검거선풍을 일으키며 소란을 피우던 끝에 팔레스티나인주민을 체포해갔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팔레스티나인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과 봉쇄책동

• 이스라엘이 16일 그 무슨 《보복》을 운운하면서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다.

이날 가자지대상공에 날아든 이스라엘전투기들은 중부와 북부지역에 미싸일사격을 가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이러한 만행은 현지주민들속에서 반이스라엘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가자지대의 보건기관이 밝힌데 의하면 현재 이스라엘군의 봉쇄로 그곳에서 의료상방조를 받지 못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있는 팔레스티나인환자수만도 약 3 500명에 달하고있다.

가자지대의 보건실태는 지금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한다.

반이스라엘집회

이란의 전국각지에서 10일 국제적인 꾸드스의 날을 맞으며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점을 반대하는 집회들이 일제히 벌어졌다.

집회들에는 수십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면서 강점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적만행들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강점을 끝장내고 자기들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인을 탄압하는 이스라엘군
←이란에서 반이스라엘시위

로씨야대통령 정보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해 강조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최근 전로청년교육연단 참가자들과의 담화석상에서 나라의 정보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로씨야가 정보기술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토대로 하여 정보기술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수한 민족수학교육과 훌륭한 정보기술인재들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비난받는 서방의 그릇된 정책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아싸드가 12일 한 외교석상에서 서방의 그릇된 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지역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테로와의 투쟁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는 서방의 부당한 정책이 수리아와 지역에 테로를 전파시켰다고 까밝혔다.

유럽의 리성적인 정치인들은 수리아와 지역에 대한 서방의 이러한 정책을 바로잡는데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8일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 글을 발표하여 서방은 핵회담에서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서방의 시도가 보다 큰 적대감만을 야기시키고있다고 지적하고 글은 이제는 렬강들이 제재와 합의들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슬람교도들의 단결 호소

이란외무성 부상이 최근 국제적인 꾸드스의 날에 즈음하여 한 발언에서 이슬람교도들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그는 이슬람교도들이 굳게 단결한다면 지역에 테로분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이 남아있을 자리가 더는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지역나라들은 팔레스티나인민의 위업을 지지하고 테로와의 투쟁을 벌리는데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심각한 식량부족문제

짐바브웨에서 최근 식량부족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이 나라 정부는 2014년-2015년 농사철에 강냉이생산량이 49% 감소되였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에 저축되여있는 식량마저도 대폭 줄어든 형편이라고 한다. 정부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강한 반대에 부딪친 안전보장관련법안

-일본의 도꾜에서 16일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수천명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아베의 정책을 반대한다!》, 《전쟁을 방지하라!》 등의 글들이 씌여진 프랑카드들을 들고있었다.

그들은 당국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일본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있다고 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쳐 당국자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대학교수들속에서 현 당국이 강행추진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9일 《도꾜신붕》이 법학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면 응답자의 90%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 헌법위반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본의 오사까시민들속에서 당국의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5%가 현 당국이 추진하고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대해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

미국의 반꾸바봉쇄철회 요구

세계직업련맹 꼴롬비아대표가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꾸바에 대한 봉쇄를 걷어치울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부당한 봉쇄로 지난 50여년동안 꾸바의 사회경제분야와 인권분야에서 막대한 손실이 났다고 하면서 미행정부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한 봉쇄책동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오만무례한 간섭으로 된다고 규탄하고 성명은 미국이 반꾸바봉쇄를 하루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국내총생산 장성

• 꾸바에서 6월에 국내총생산이 4.7%로 장성하였다.

15일 이 나라 신문 《그란마》가 밝혔다.

• 싱가포르에서 2.4분기에 국내총생산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7% 장성하였다.

14일 이 나라 무역 및 공업성이 밝혔다.

여러 나라들 협조

인디아와 뚜르크메니스딴이 11일 외교, 의학, 체육, 과학기술, 관광 등 분야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문건들에 조인하였다.

한편 최근 남아프리카와 인디아는 투자와 관광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륙횡단철도 부설을 위한 노력

브라질에서 최근 대륙횡단철도부설준비를 다그치고있다.

15일 이 나라 정부는 철길로반위치를 확정하는 한편 철도부설로 인한 산림파괴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고 밝혔다.

나라에서는 교통비용을 줄이고 지역나라들사이의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새 철도부설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웰남에서 벼가을

날로 악화되고있는 로미관계

최근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이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서방이 로씨야에 대한 제재에 광분하고있는 불순한 목적을 폭로하였다. 그는 서방의 대로씨야제재가 자국의 경제적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어 궁극에 가서는 로씨야의 현 지도부를 교체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까밝혔다.

이전에도 그는 신문 《꼼메르싼뜨》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로씨야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미국의 속심을 까밝힌바 있다.

결코 틀린 말이라고 볼수 없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우크라이나사태의 책임을 모두 로씨야에 들씌우고 대로씨야제재를 강화하고있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미국 등 서방세력은 로씨야의 에네르기와 금융, 국방부문을 목표로 삼고 제재를 들이대고있다.

어느 나라이든 이 3대부문이 매우 중요하지만 로씨야에서는 특히 중요한 부문으로 되고있다. 로씨야경제는 주로 에네르기수출에 의존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과의 금융거래를 통하여 경제적잠재력을 강화하고있다. 로씨야는 강국건설을 지향하면서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고있다.

로씨야의 3대부문에 대한 제재를 집중적으로 들이대여 경제적, 군사적잠재력을 약화시키기만 하면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날수 있다는것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타산이다. 미국에 추종하고있는 유럽동맹은 지난해부터 로씨야의 에네르기, 금융, 국방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로씨야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그를 통해 로씨야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하고있다.

미국무성은 얼마전에 발표한 《2014년 나라별인권보고서》에서 로씨야정부가 《이색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조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있다고 헐뜯었다.

미국은 나토에 고도기술무장장비를 제공해줄것을 계획하는 등 무력증강에 대대적으로 매달리면서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로씨야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미국의 속심을 그대로 읽을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얼마전 미국방장관 카터는 로씨야의 《위협》을 막기 위해 나토의 신속반응무력에 고도기술무장장비와 정보 및 병참지원, 특수작전무력을 제공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 등 서방세력의 반로씨야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것이 로씨야의 강경한 립장이다.

로씨야는 자국을 봉피시키려는 미국의 비렬한 음모를 까밝히면서 해당한 대응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자국의 모든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유럽에 치우쳤던 경제무역구조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로 확대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처하여 동쪽에로의 방향전환을 한 결과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과의 동반자관계가 확대되였으며 유라시아경제동맹, 브릭스, 상해협조기구 등 지역기구들과의 협력도 활발해졌다. 로씨야는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고있다.

손해를 보고있는것은 미국에 맹종맹동한 유럽동맹이다. 지난해 유럽동맹은 대로씨야경제제재로 인해 무려 1 0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특히 로씨야의 농산물수입금지조치로 하여 거의 모든 유럽나라들이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2일 유럽동맹은 대로씨야경제제재를 2016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로씨야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럽동맹 17개 나라의 정치인들과 군대,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포함한 89명에게 로씨야입국금지조치를 취하였다.

로씨야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군사적위협공갈책동에 강경대응으로 맞서나가고있다.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나토가 로씨야의 국경선에 접근해오고있는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국령토를 위협하려 한다면 바로 그 나라가 로씨야무력의 목표로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로씨야의 깔리닌그라드주둔 미싸일려단을 기동전술미싸일종합체 《이스깐제르-M》으로 재장비시키려 하고있다. 서방의 전략적움직임을 감시하게 될 신형전파탐지소가 몇달안으로 국가시험을 받고 설치되게 된다. 임의의 미싸일방위체계도 극복할수 있는 40여기의 대륙간탄도미싸일들을 배비하려 하고있다.

로씨야국방성은 항공우주방어군이 자체의 미싸일방위체계의 개발과 리용분야에서 풍부한 기술적경험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자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다탄두를 탑재한 새 세대의 전략탄도미싸일도 능히 요격할수 있다고 밝혔다.

현실은 로미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재와 군사적위협으로 주권국가를 압살하려는것은 시대착오적인것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림 원

ㄱ-51113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